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임강택 | 이석기 | 이영훈 | 임을출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임강택(통일연구원) |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영훈(한국은행)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본 서의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I.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외 추진여건

가. 대내 환경

<정치 환경>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후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주력함. 특히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함.
- 정권 기관과 당 조직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등 체제안정화에 주력
 - 민심 수습 및 경제난 타개 등을 염두에 둔 내각개편 등 인적 쇄신 단행
 -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차례 개최하고 44년만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

<경제 환경>

-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 허용 조치, 식량 도입 확대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한계에 직면
 - 화폐개혁 후유증,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 심화 등으로 경제회생의 징후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2회 방중 등을 계기로 북·중간 경제관계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나. 대외 환경

-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이 진전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됨.

〈대미관계〉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유엔재제 결의안 1874호와 1718호는 물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6자회담의 협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
 -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서 북·미간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대중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중국 방문으로 북·중간 협력이 강화됨.
 -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활로 모색

〈남북관계〉

- 천안함 피격사건(3.26) 등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됨.
 - 북한은 한때 이산가족 상봉 등 대남 유화공세를 펴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연평도 포격도발로 최악의 남북관계에 직면

2.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 북한은 올해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제시함.
 - 주요 과업으로 경공업과 농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강조

- 목표 설정에 있어 구체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 등을 계기로 ‘경제 주체화’ 실현을 강조함.
 - 또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도입 등 생산공정 현대화와 이에 따른 생산 증대를 집중 부각
 - * 각 공장의 CNC화 실현은 김정은 업적으로 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의 후유증 최소화 및 원활한 경제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함.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강조함.
 - 1~3월 사이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개최 및 국가개발은행 설립, 나선특별시 지정 및 관련법규 개정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
- 그러나 대북제재 심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됨. 이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활성화에 주력함.
 - 중국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북·중간 경험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드러졌음.
 -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의 논의가 진행됨.

II.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 효과

-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대남 군사적 도발 중단 등을 목적으로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견해와 함

계,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

- 북한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는 견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활동이 제약을 받고, 불법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장애를 조성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음.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한〉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북한의 외화수급 상황 악화 가능성〉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외화수급 상황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대북 제재조치의 핵심이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와 북한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동안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 중의 하나인 무기거래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북한의 불법경제 활동 및 지도부의 통치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 조직 및 산하 무역회사와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외화벌이 사업에도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제재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북·중 경제관계 등이 제재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북한당국의 대주민 사과조치 정황 등으로 미루어 화폐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공식부문의 상품 공급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커졌으며,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화폐개혁의 주요 파급 효과로는 물가·환율 급등락 및 그로 인한 주민 생활난 악화, 공장가동률 저하 현상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안정성 훼손과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환 금액의 제한을 통해 주민들이 보유한 현금을 국가가 탈취함으로써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화폐발행을 통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자생적 시장계층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시장에 의지하여 생계를 해결한 일반주민과 자생적(비권력형)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자산을 몰수당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외환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됨.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최근 산업정책의 의미〉

-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북한이 1980년대까지 구축한 산업연관구조가 붕괴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분적인 산업생산 회복이 이루어짐.
 - 석탄과 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너지와 철광석 등을 이용한 금속 생산→기계부문과 일부 건설자재 부문→군수부문으로 이어지는 연관 구조의 규모가 축소된 채로 우선적으로 복구
- 그러나 화학공업이 복구되지 못함에 따라 석탄 및 전력→석탄화학→경공업 및 농업으로 이어지는 생산 연쇄는 거의 복구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비재와 필수 원자재는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최근의 화학공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금속부문의 강조는 군수부문 우선 투자 정책에 의해서 완결되지 못한 산업연관 구조의 복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석탄화학이나 주체철 등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함.

〈최근의 투자와 강성대국 건설〉

-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설비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2012년에 강성대국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전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자원 동원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임.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대내정책〉

- 북한은 2010년 초부터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안정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았으나 환율, 쌀 가격 폭등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됨.
- 경제기조 측면에서는 2010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외정책〉

- 북한은 2010년 초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 적극적인 공세를 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 외의 국가들과는 가시적인 경제협력 실적을 내지 못함.
 -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잇따른 도발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

(2) 주요 산업부문

- 2010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에너지, 광업, 건설, 제조업 부문은 전년보다 다소 생산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농업, 상업·유통 부문의 생산 실적이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전력 및 광공업부문〉

- 중대형발전소의 신규 조업 및 풍부한 수량에 따른 수력발전량 증가, 석탄 공급 증가 및 주요 발전소 개보수 효과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률 상승 등으로 전력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철광석 등 광업부문은 전력 사정의 개선, 설비 개선 및 확충 등으로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제조업 부문은 전력 사정이 2009년에 비해 개선되고, 대규모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금속,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 경공업 부문은 당국의 경공업 부문에 대한 전력 및 원자재 공급 증가에 따라 식품가공과 방직부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일부 대규모 화학 플랜트가 완공·조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생산 실적은 확인할 수 없음.

〈식량부문〉

- 농업부문의 생산은 비료공급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와 불리한 성장조건 등에 따라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9년 대비 약 5%, 20만톤 감소 전망
 - 그러나 FAO 및 WFP는 북한의 곡물생산이 2009년에 비해 약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

〈기타부문〉

- 건설부문은 대계도 간척사업 등 대규모 토건공사, 평양시 10만호 주택 건설사업, 희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화학 플랜

트 건설, 그리고 경공업 공장 현대화 및 신설 등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상업·유통부문은 민간부문의 위축이 공공부문의 확대에 상쇄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
 - 민간 부문의 상업·유통은 화폐개혁과 시장 억제 조치 등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3)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 대북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경협을 제외한 남한 및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축소
- 북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확대
 - 2010년 북·중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5월 이후 빠르게 증가
 - 중국 신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09.10), 중국 길림성의 나진항 10년 이용권 확보 발표('10.3), 청진항 개발 합의('09.10) 등 북한 인프라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
 - 특히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대북한 임가공 무역이 증가하고 도문 및 훈춘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이 협의중
 - 2010년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관광코스를 다변화할 전망
- 북·중경협 추진에 있어 경제적 요인보다는 김정일 연내 2회 방중 등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정치적 요인 강화는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기조를 수정한 데에 기인

- 남한과의 경협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일반교역, 임가공 무역, 대북지원 등 대부분 축소
 - 이러한 축소 현상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어 5.24조치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것임
-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1,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
 - 특히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미미함.

2. 2011년 북한경제 전망

가. 후계체제下 주요 경제과제 및 경제정책 전망

-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확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가장 고민하게 될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제적 궁핍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후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1년 북한당국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북한이 최근 후계자의 통치기반 구축작업에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주민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작업이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따른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국가재정 부족 등의 후유증을 북한당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등임.
- 경제 질서와 통제력의 회복: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이후 두 번째로 주목할 부문은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문제임.

-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획기적으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 연평도 포격도발 해결, 비핵화 진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정책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자립경제 혹은 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하면서 보수적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정상화와 국가의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질서의 회복과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열과 단속 강화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에서의 자원 조달: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외부문에서 김정은이 직면한 과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차 핵실험 등과 같은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 다만 유일한 활로인 중국과의 경협 활성화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지향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임.

나. 주요 산업부문 전망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하기 위하여 2011년에 산업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큼. 특히 소비재 공급 증가를 위해서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임.
- 주요 산업설비의 완공 및 실질적인 가동 여부가 2011년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야강 군민발전소(18만kW),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1호(6만kW)발전소 조기조업 선전(『로동신문』, 2010.12.28)), 희천발전소(30만kW) 등 대형 수력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완공·조업된다면 전력공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최근 완공된 대형 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공정 1단계가 완공되어 조업하면 경공업 원자재 및 비료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원자재와 비료의 자체적인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서라도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이나 외부적인 심각한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1년 북한 산업부문은 2010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선언(강성대국 선전 등)을 위하여 과도하게 경제적 자원을 투입함에 따라 2012년 이후 북한 경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 대외 경제부문

-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하려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식량, 생필품, 에너지 등 주요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당분간 북·중관계를 통해서 대외부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협을 다변화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외자 유치 또는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를 위해 광산·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외에 나선지대 및 위화도·황금평 개발 등과 관련한 경협을 통해 자금 조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북한정부는 중국에 의지하여 체제를 근근히 유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자생적 생산기반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개혁개방이 지체된 가운데 북·중무역이 확대되면서 저가 중국산 제품이 북한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게 되었음.
- 이와 함께 북·중경협 확대는 남북교역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목 차

I.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1
1. 대내외 추진여건	1
가. 대내 환경	1
나. 대외 환경	3
2. 대내 경제정책	7
가. 추진방향과 전략	7
나. 부문별 추진과제	9
3. 대외 경제정책	11
가. 추진방향	11
나. 전략	12
4.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13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13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16
II. 2010년 북한경제 실적	18
1. 대내 경제	18
가. 선행부문	18
나. 농·림·축·수산업 부문	26
다. 경공업 부문	29
라. 과학기술부문	31
마. 건설·국토관리부문	32
바. 상업·유통부문	34

2. 북한의 대외경제	35
가.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	35
나. 남북교역의 주요 특징	37
다. 전월 대비 비교	39
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적	40
Ⅲ.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43
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43
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파급효과	43
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47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52
라. 북·중 경제관계 확대	54
마. 종합평가	55
2. 2011년 북한경제 전망	62
가. 김정은 후계체제下 경제분야 주요 과제	62
나. 북·중 경제협력관계 확대 전망	66
다. 식량 수급 전망	67
라. 2011년 북한경제 전망	70
부 록 - 2010 북한경제 주요실적	83
2010 북한경제 주요행사	92
2010 북한경제 주요일지	98

표목차

<표 II-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2009~2010)	27
<표 II-2>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36
<표 II-3>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량	36
<표 II-4>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37
<표 II-5> 최근 남북교역 현황	37
<표 II-6>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38
<표 II-7>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39
<표 II-8> 북·중간 경제협력 사업 동향	40
<표 II-9> 창지투개발계획 상의 8개 대북통로 프로젝트	41
<표 III-1> 북한시장의 쌀가격(kg) 추이	48
<표 III-2> 북한 주요 지역의 쌀가격 변화 추세	49
<표 III-3>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중 추이	66
<표 III-4> 중국의 광물제품의 대북 평균수입단가 비율	67
<표 III-5> 2010·2011년 북한의 곡물 수급 추정(조곡 기준)	68

그림목차

<그림 II-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수입(2003년 1월~2010년 11월)	35
<그림 II-2> 월별 남북교역 추이	39

I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외 추진여건

가. 대내 환경

〈정치 환경〉

- 2010년 북한의 핵심 정책과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후계 체제 조기 구축으로, 이를 위해 체제안정화 작업에 주력함.
 - 정권 기관과 당 조직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
 -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한해에 두 차례 개최하여 민심 수습 및 경제난 타개, 3대세습 기반 마련 등을 염두에 둔 인적 쇄신책을 단행함.
 - ※ 6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3대세습 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음.
 - ※ 또한 총리 및 경제분야 내각 상들을 교체하여 화폐개혁 등 경제난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리고자 시도
 - 44년만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하여 당 요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등 당의 역할 정상화를 위한 기반 확보
 -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등 치안기구 조직개편 등을 통한 주민통제 강화

- 아울러 대주민 김정은 선전활동 전개, 후계자 이미지 구축 노력
 - 3남인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을 위해 김정은 찬양 시·노래를 보급하고 암송 경연 대회까지 여는 등 김정은 우상화가 진행됨.
 - ※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 관여의 폭 확대
 - 당 중앙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공동 구호 발표, 각종 군중대회 개최 등 선전선동 사업 지속

〈경제 환경〉

-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부작용 해소를 위해 북한 당국은 폐쇄한 시장을 다시 허용하고 식량 도입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한계에 직면
 -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 이후 △시장 통제 및 외화사용 금지 완화 △가격·사재기 통제 등 내부 단속 △외부 식량도입 등 다양한 조치 실시
 - 그러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생필품 공급능력 확대 노력은 성과가 미진하고 식량난도 가중된 것으로 추정
 - ※ △2009년 식량 생산량 감소(2008년 대비 4.6% 감소) △시장 유통량 제한 △국제사회 지원 감소 △봄철 이상저온 및 수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식량난 가중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2010년 1~3월 사이에는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개최 및 국가개발은행 설립, 나 선특별시 지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
 -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회생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국방위원회 등 권력기관을 통한 외자유치 추진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나. 대외 환경

-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이 진전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됨.

<대미관계>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재제 결의안 1874호와 1718호는 물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6자회담의 협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
 -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북간 접촉, 대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한 핵보유국 지위 모색
-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강화됨.
 - 미국은 2010년 8월 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 또한 11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하에 있는 조선대성 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되어야 미·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커트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0년 10월 7일 서울에서 김재신 차관보 등 외교당국자들을 만나,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6자 회담 재개 등 미국의 대북 개입(engagement)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

〈대중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중국 방문으로 북·중간 협력이 심화됨.
 -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활로를 모색함.
 -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김 위원장이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고 강조¹⁾

- 당대표자회(9.28) 개최 이후 조선노동당-중국공산당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
 -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경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을 면담²⁾
 - 북측의 문경덕 책임비서는 “이번에 조선 모든 도와 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이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인민이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직접 목격했다”고 언급

-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북·중 혈맹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됨.
 -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0월 24일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중·조 관계가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함.
 -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돼 사실상 대권가도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도 10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행사에서 “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서

1)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9일.

2)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9일.

뺏어진 위대한 우정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함.

〈남북관계〉

- 천안함 피격 사건(3.26) 등으로 2010년 초반부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
 -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5.20) 이후 정부는 강경한 대북 대응기조를 천명함. 정부는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남북교역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대북 무력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취함.
 -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남측에 의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함에 따라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증대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고자 천안함 피격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고,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함.

- 북한은 2010년초부터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대남 비난·위협을 지속함.
 - 급변대비 계획, 키 리졸브 훈련 등 다양한 소재로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 유지
 - 개성공단(2.1), 금강산관광(2.8) 실무회담 결렬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금강산 지구 부동산 동결 조치(4.23,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등으로 강경조치 단계적 강화
 - 천안함 피격사건(3.26) 이후 사건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군사적 위협 등 강경대응
 -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및 UN 안보리 회부(6.4)에 대해 군사적 위협 및 일부 대응 조치를 단행(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동결, 철폐 등)

- 북한은 한때 이산가족 상봉 등 대남 유화공세를 펴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연평도 포격도발(11.23)로 남북간 긴장상태가 심화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월 16일 “조선(북한)이 항상 놓칠 수 없는 과제로 간주해 온 것이 북남관계 발전”이라면서 “조선인민에게는 경제부흥과 더불어 북남관계 문제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1월 15일 논설에서 “관광사업과 북남관계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라면서 “관광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부정이자,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으며, 북한의 자위조치로 왜곡·정당화하고 NLL을 부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음.

〈기 타〉

- 2006년, 2009년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된 국제사회의 금융·무역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한계 노정
- 캐나다는 2010년 10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관계 제한’ 정책을 시행,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대북 제재조치를 구체화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이에 따른 지원금 급감으로 2010년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밝힘.³⁾
 - ※ FAO의 티어도어 프리드리히(Friedrich) 담당관은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상황은 기금을 모으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탈리아는 지원금을 50%나 줄였다”면서 “자금 규모가 줄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언급함.

3)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8월 4일.

- 유럽연합(EU)은 2010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북한정권에 연루된 기존의 개인 18명, 법인 12개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개인 1명과 법인 6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함.
 - 유럽 기업들도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북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⁴⁾

2. 대내 경제정책

가. 추진방향과 전략

- 북한은 2010년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제시함.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해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함.
 - 즉,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공세를 벌리는 것”을 “올해의 투쟁 방향”으로 설정함.
- 이런 정책방향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4.9)에서 논의된 예산 배정에서도 재확인됨.
 - 북한의 2010년 예산 가운데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농업·경공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확대됨. 농업 부문은 2009년 6.9%에서 9.4%로, 경공업 부문은 2009년 5.6%에서 10.1%로 각각 증가함.
 - 이와 관련 김영일 총리는 “올해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소비품과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과 현대화를 다

4)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1월 22일.

그치는데 중점을 두고 대고조 전투를 힘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강조함.

- 비슷한 맥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초부터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 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로동신문』은 “당이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결심이라고 주장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강화하였고,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이자 방침인 경공업·농업 분야 생산력 증대를 강조함.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함.
- 4/4분기 사업 종류와 실행방안을 논의⁵⁾했던 2010년도 4번째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관련 결정이 채택됨.
 -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데” 대한 문제

5)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한 『조선신보』 보도, 2010년 10월 28일.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CNC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데” 대한 문제
-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과 도인민위원회들에서 산림조성과 도로, 강하천 정리, 도시경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릴 데” 대한 문제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리며 올해 국가에 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문제
- “내각사업을 개선 강화해 나갈 데” 대한 문제들

나. 부문별 추진과제

-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경제분야 부문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경공업부문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2) 농업부문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북한은 특히 2010년 농업부문 역점사업으로 종자혁명을 꼽았음.

- 북한 농업성 장학수 국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⁶⁾에서 “농업 증산의 열쇠는 종자혁명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다”며 “지난해 전투기간에 벼 종자와 강냉이(옥수수) 종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 우량종자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힘.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자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성과)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3) 금속공업부문

-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 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 목표를 점령하여야 함.

(4) 전력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5) 석탄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함.

6) 『조선신보』, 2010년 1월 18일.

(6) 철도운수부문

-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함.

(7) 기계공업부문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 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8) 기타

-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혜택의 참다운 향유자가 되게 하여야 함.
-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상품 유통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

3. 대외 경제정책

가. 추진방향

- 2010년 대외 경제정책 기조는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바대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임.

나. 전략

-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함.
 -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나선시는 ‘특별시’로 지정됨.
 - ※ 지정前 2009년 12월 김정일이 나선시를 방문하여 “나선시는 중요한 대외 무역 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⁷⁾
 - 또한 같은 달에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그간 준(準) 방치상태에 놓였던 나선지대를 개발해 외자유치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임.⁸⁾
 - 그러나 새로운 장려·특혜조치 없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유인 동기는 낮을 것으로 보임.⁹⁾
- 아울러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투자 유치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외자유치 창구 설립을 시도함.
 - 1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 할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침을 밝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 외 나라들의 대북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 활성화를 도모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북·중경협 활성화 지원

7) 『조선중앙통신』, 2009년 12월 16일.

8) 개정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투자가는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공업·농업·건설·운수·통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 같은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외자를 현지 인프라 개발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국가장려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10%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기존 北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9조」에 규정된 내용과 차이가 없는 바, 새로운 특혜조치로 보기 어려움.

-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방문교류를 통한 북·중경협 확대 기반 마련
 - ※ 11월 1~8일, 7박 8일간 최영림 내각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을 시작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¹⁰⁾
 - ※ 10월 19일에는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친선대표단이 공산당 서열 9위인 저우용강(周永康) 상무위원을 만나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함.
- 이는 중국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북·중간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됨.

4.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 최근 강화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복원 움직임은 2010년에도 지속되어, 2009년말 화폐개혁에 이어 시장 축소, 무역기관 통폐합, 관련법 정비 등 당국의 경제 통제력 강화 시도가 계속됨.
 - 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시장 폐쇄(농민시장 전환) 정책 추진
 - ※ 2010년 1월 18일 『조선신보』는 “공업제품은 국영봉사망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강구되는 한편, 시장에서는 ‘농토산물’만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보도
 - 2010년 4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에 의한 경제·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 이러한 통제 강화를 통해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非)사회주의 요소 척결’을 도모

10) 북한 대표단에는 최 총리 이외에도 노두철 내각 부총리와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 황학원 도시경영상 등 북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됨.

- 그러나 시장 축소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그에 대한 후유증 최소화 및 원활한 경제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함.
 - 2월경부터는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 북한 사회과학원 이기성 교수는 “일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인하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통화유통 시스템도 개선했음”을 언급¹¹⁾
- 2010년 인민생활 향상 목표는 단순히 경제 사업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된 것이 특징적임.
 - ※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인민생활 향상’은 “아버이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
 - 북한의 매체들은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경제 성과’ 달성을 강조한 바 있음.¹²⁾
 - ※ 『민주조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대고조 진군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에 소집되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찬란한 미래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라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고 밝힘.
 -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특히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4대 선행 부문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목표설정에서 있어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보다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 등을 계기, ‘경제 주체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

11) 『교도신문』 인터뷰, 2010년 4월 18일.

12)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 2010년 7월 3일.

- 『조선신보』는 “올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분야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면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확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2010년 주요 성과로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생산’과 ‘각 도에 삼일포식 공장을 세운 것’ 등을 제시함.¹³⁾
- 한편 각 공장에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도입이 강조되고 있음. 북한에서 ‘CNC’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수공장들을 시찰하면서 CNC(컴퓨터수치제어) 도입을 독려했다고 전언
 - ※ 김정은이 11월 함경북도와 자강도 내 군수공장들을 비공개로 시찰하고, 이와 관련 당 중앙군사위가 2경제(군수경제)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산하 군수공장들에 ‘CNC 도입의 본보기가 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¹⁴⁾
 - 북한 선전매체들이 2010년 초부터 연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희천공작기계공장’의 생산력 증대가 CNC 도입의 성과임을 집중 조명함.¹⁵⁾
 - 평양 제1백화점 앞 등에 CNC 선전 포스터가 부착되고, 아리랑 공연에 ‘CNC 주체공업의 위력’ 문구가 삽입됨.
 - 북한 언론매체들은 연말에도 북한에서 CNC와 관련해 일어난 최첨단 돌파전의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함.
 - ※ “올해에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최첨단 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었다”면서 모범 사례 공장들로 연하기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소개¹⁶⁾
 - 특히 북한은 최첨단 돌파전의 성과로 연하기계의 CNC기술을 내세우면서,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 아래 연하기계의 CNC설비 생산과 보급을 “인공지구위성을 연이

13) 『조선신보』, 2010년 12월 14일.

14)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11월 18일.

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로동신문』,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 등

16)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10일.

어 싹 올린 것과 같은 큰 승리”라고 평가함.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제시했고, 그에 앞선 199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과학에 대한 투자와 과학자들의 해외교류를 강조해 왔음.
 - 천안함 피격사건과 3대 세습 등 북한 안팎의 격변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 과학계는 국제 과학저널에 역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¹⁷⁾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월 14일 준공식을 가진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친필명제’를 보내 애국심과 선진과학기술을 겸비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함.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 2010년 초에는 국가개발은행 설립,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1차 회의 개최(1.20), 나선특별시 지정 등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으나,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외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
 - 다만, 중국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북·중간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드러졌음.
 -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동북 3성 개발, 김정일 연내 2회 방중(5월, 8월) 등을 계기로 보다 활발해짐.
- ※ 제17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참석차 베이징에 집결한 중국의 각 성(省)·시 비서(시·도지사)들과도 접촉해 각 지방 단위의 경협방안을 논의

17) 세계적인 과학저널 평가기관인 영국의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북한 과학자들은 총 26편의 논문(공동저자 포함)을 국제적인 저널(SCI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했음. 이는 국제 저널에 북한이 처음 등장한 1976년 이후 한해 발표된 북한의 논문 편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임.

- 북한이 2010년 1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했으나, 비핵화 결단에 이은 대대적인 대외개방을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했다기 보다는 화폐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계획경제 강화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됨.

II

2010년 북한경제 실적

1. 대내 경제

가. 선행부문

- 2010년 북한의 선행부문은 전력 사정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대규모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금속,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 일부 대규모 화학 플랜트가 완공·조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생산 실적은 확인할 수 없음.

(1) 전력부문

- 전력부문 투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집중되고 있음.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1호 6만kW 추정), 금야강군민발전소(18만kW 추정), 희천발전소(30만kW 추정) 등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 △『로동신문』¹⁸⁾은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가 조업했다고 선전 △금야강군민발전소는 댐공사가 완료되어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예상 △희천발전소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독려하고 있음.

18) 『로동신문』, 2010년 12월 28일.

- 예성강6호발전소 및 연산군민발전소 완공, 10여개 중소형 발전소 완공임박 등 중소형 발전소 건설 실적도 보도¹⁹⁾
- 2010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수력 및 화력 양 측면에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서부지역의 전력 사정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수력부문에서는 신규 발전소의 조업 효과와 많은 강우량에 따른 풍부한 수량 등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8월 5일 예성강청년2호발전소가 완공·조업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에 조업한 영원발전소(9만kW)의 생산 효과도 추가
 - 여름의 수해는 수력발전부문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수량을 풍부하게 하여 서북부지역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됨.
- 화력부문에서는 석탄 공급 증가와 대형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성과 등에 따른 발전량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고, 무연탄의 대중 수출을 줄여 발전소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화력발전부문의 생산 감소의 주요 요인의 하나였던 6자회담 증유 공급 중단 영향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음.
 - 북창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의 개보수 성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발전소의 개보수에는 과거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증유와 함께 지원받았던 발전설비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19)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8일.

- 북한 매체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매일 수백만Kwh의 전기가 더 생산되었다거나,²⁰⁾ 수력발전소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일 200만Kwh의 전력이 증산되었다고 보도²¹⁾

(2) 석탄 및 광업부문

- 석탄 생산량도 전력 공급 증가, 새로운 탄광의 개발 등에 따라 최근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조선중앙통신』은 9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4% 증가하였다고 보도
- 주요 성과로는 2.8직동청년탄광의 대규모 능력의 강성갱 건설과 제남탄광의 2단계 벨트컨베이어 건설 완료 등이 보도됨.²²⁾
- 철광석도 전력공급 증가와 주요 광산의 설비 개선 등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²³⁾은 2010년 11월말까지의 철광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6배라고 보도하였으며,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 2010년 1~7월간 철광석 대중 수출량은 약 230만 톤으로 2009년 동기 대비 11% 증가
 - 철광석 부문에서는 무산광산의 1호 대형원추형 파쇄장 완공 및 조업, 재령, 은률광산의 생산 성과 등이 비중 있게 보도되었음.
 - 동광산인 3월5일청년광산의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음.²⁴⁾

20)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9일.

21) 『로동신문』, 2010년 9월 7일.

22)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9일.

23)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14일.

24) 『중앙방송』, 2010년 5월 30일.

(3) 금속부문

- 금속부문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별도로 언급될 정도로 2010년에 가장 강조된 부문임.
 - 『조선중앙통신』²⁵⁾은 2010년 11월말 기준 금속부문 성과로, △공업총생산액 전년 동기 대비 1.3배 △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생산을 보도
 - 천리마제강에 대한 파철 집중 공급은 2010년에도 주요 성과의 하나로 보도되었음.²⁶⁾
- 2009년도에 천리마제강의 성과 보도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김책제철소의 성과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09년에 보도된 바 있는 김책제철소의 주체철 생산 공정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월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3월) 등 생산 공정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보도
 - 이 밖에 천리마제강의 2호 초고전력전기로²⁷⁾ 조업과 황해제철소의 “전력관리 운영 계통과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조종계통 CNC화 실현” 등이 주요 성과로 보도
- ‘주체철’ 생산 공정 건설에 대한 보도는 20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이는 김책제철, 황해제철, 성진제강 등의 ‘주체철’ 생산 공정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이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민주조선』은 2010년 3/4분기 ‘주체철’ 생산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보도하였는데, 생산 규모가 크지 않은 ‘주체철’ 생산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주체철’을 통한 생산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5)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14일.

26) 『중앙방송』, 2010년 11월 27일.

27) 초고전력전기로는 전기로에 투입된 전력이 700kVA/t 이상인 전기로로써 제강시간, 전력소비, 전극소비, 내화물 소비에서 일반전력 전기로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음. 북한은 주체철 공법은 전기로에 전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철이 필요하였으나, 일반 전기로가 아닌 ‘초고전력 전기로’를 도입하여 고철 없이도 철강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전하였음;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29일자, 『로동신문』, 2010년 10월 30일.

- ※ 북한은 2009년에는 ‘주체철’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5배가 되었다고 선전한 바 있음.
- 향후 ‘주체철’ 생산을 위한 추가투자는 김책제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김책제철소에서는 2012년까지 수십만 톤의 ‘주체철’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전력, 석탄, 철광석의 생산 및 코크스탄의 수입 증가를 배경으로 김책제철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4) 기계부문

- 2010년 기계부문은 대형 수력발전소용 발전설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및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비료공정용 설비 등 대형 설비 제작이 지속되고, 산업 설비의 CNC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전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석탄 가스화 비료생산 공정 건설을 위한 대형산소분리기를 공급²⁸⁾
-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새로운 주철공장과 압축기 직장의 건설을 완료, 조업한 것으로 보도²⁹⁾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발전능력 500w, 주파수 60Hz인 신형 극소형 발전기를 생산³⁰⁾
- 식품가공공장을 중심으로 경공업 공장의 신설 및 현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생산 활동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CNC화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이 컴퓨터를 도입한 공장 자동화라고 하더라도 기계, 전자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중앙방송』, 2010년 2월 16일.

29) 『중앙방송』, 2010년 8월 17일.

30)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29일.

※ CNC화는 기계부문을 넘어서서 북한 산업 전반의 핵심으로 상징화되고 있음.

- 북한 『중앙방송』³¹⁾은 2010년 기계공업의 성과로 인민경제계획이 공업생산액 기준으로 117% 수행되었다고 보도
 - 『민주조선』은 3/4분기 기준으로 기계공업부문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CNC공작 기계는 15배, 발전기 1.19배, 광차 1.32배 등으로 증가하였다고 보도
- 좁은 의미의 CNC화, 즉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개발과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하기계집단의 신형 최첨단·고성능형 CNC 공작기계인 ‘9축 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였다고 하며,³²⁾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신형 복합가공반을 개발하였다고 함.³³⁾
 - 조선기계무역총회사는 실린더, 보링반 등 각종 기계제품을 생산하여 공장, 기업소에 공급,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다고 함.³⁴⁾
- 그런데, 북한에서는 2009년 후반 이후 CNC화가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도입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즉, 컴퓨터를 통한 생산제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CNC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CNC화는 공작기계와는 무관한 공장, 즉 2.8비날론연합기업소나 평양곡산공장과 같은 식품가공공장에서도 추진³⁵⁾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CNC화는 199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던 컴퓨터를 도입한 생산의 현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31) 『중앙방송』, 2010년 12월 21일.

32) 『중앙방송』, 2010년 9월 11일.

33)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9일.

34)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23일.

35) 북한은 평양곡산공장의 CNC화를 통하여 생산 능력이 3배로 늘어났다고 선전하기도 하였음.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31일.

(5) 화학·건재부문

- 화학부문은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문의 하나인데, 2010년에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개건·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2월 7일 조업하였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비료 공정이 4월 29일 조업을 개시하였음.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석탄 가스화 비료 공정에 1계열의 공정이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는 ‘섬유띠’와 연조공정이 추가로 건설되었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비료 공정의 1계열 공사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음. 북한은 2012년까지 두 계열의 석탄 가스화 비료 공정을 건설할 계획임.

- 2010년 말에 완공된 남흥청년화학의 비료 생산 공정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비날론 생산 공정의 실제 생산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 건설된 화학 설비는 현재 북한에서 공급 증가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비료 및 경공업 원자재를 생산하는 플랜트인 바, 실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면 관련 동향이 빈번하게 보도되었을 것임.
 - 그러나 화학부문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거의 없음. 뿐만 아니라 수요 부문인 경공업·농업 부문에서도 화학공업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의 상당한 증가를 추정할 수 있는 동향을 발견할 수 없음.
 - 북한이 대형 화학플랜트의 완공·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은 주된 투입요소인 전력 및 석탄의 공급량 및 질의 문제, 그리고 생산 설비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가동률이 크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이들 대형 설비들은 일단 완공을 선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건재부문에서는 단천마그네사이트 공장의 ‘조선식 내화물 생산체계’의 구축 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음.³⁶⁾
 - 북한은 단천 마그네사이트공장에서 마그네샤크링카 생산의 非코크스화를 2009년에 실현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 성과를 확대하여 무연탄 알탄 생산공정을 확장하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경소마그네샤³⁷⁾ 생산공정을 구축하였다고 선전
 -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유리병 생산공정이 추가로 건설되었음.

(6) 수송·통신부문

- 수송 부문에서는 철도 부문 개선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음.
 - 송도-남흥 철도전기화 공사와 고원-단천 철로 개건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강계침목 방부공장 방부공정의 현대화가 실현³⁸⁾
- 도로부문에서는 평양시와 강계시의 연결도로 개건과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평안북도 주요 도로 건설사업 등이 주요 성과로 보도됨.³⁹⁾
- 2009년에 이어 단천항의 확장공사가 지속되었는데, 주요 성과로 수백m 방파제 건설 완료 등이 보도됨.
- 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망 및 가입자 증대가 주목됨.
 - 2010년 9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약 30만 2천명으로 동년 3월말의 12만 5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도⁴⁰⁾
 - 이러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 증가는 통신망/회선증가(42개 중소도시 통신망 확충)로 인한 서비스 지역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임.

36) 『로동신문』, 2010년 10월 28일.

37) 마그네사이트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 만든 가루모양의 신화마그네슘으로, 마그네슘 비료로 사용됨.

38)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9일.

39)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19일.

40) 오라스콕사, 3/4분기 실적 보고서

※ 오라스콤사는 2010년 말까지 총 59개 소도시에 통신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향후에도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조선신보』가 보도한 2010년 가입자 수 6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함.

나. 농·림·축·수산업 부문

(1) 2010년 북한 식량 수급 분석

- 북한은 식량생산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생산량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추정치, 북한 당국의 비공식적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2010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2009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과 2010년 초여름에 수확한 이모작 곡물을 합한 것임.
- 2010년 북한의 곡물 총공급량은 약 440만톤 내외로 수요량(최소 460여만톤~최대 540여만톤)에 비해 최소 20만톤에서 최대 100만톤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도 수요량) 최소 460여만톤(FAO 기준 1일 최소권장량 적용), 최대 540여만톤(북한 정상배급량의 22% 감량 적용)으로 추산
 - (2009년도 생산량)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
 - (2010년도 양곡연도간 곡물 수입량) 2010 양곡연도(2009.11~2010.10) 동안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양은 약 35만 톤으로 추정됨.
 - ※ △FAO는 북한이 2009년 11월~2010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수입한 곡물을 177,000톤으로 추정 △2010년 5~10월까지 6개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71,300톤 <표 II-1> 참고
 - ※ 따라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348,300톤으로 추정됨.

- 다만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수입한 곡물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부족량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식량 상황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표 II-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08	1101	1201	
2009. 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64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2010.1-11	1,021	81,095	72,369	899	99,493	25,516	280,393

주: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http://db.kita.net>>

(2) 농림·축·수산부문

- 식량을 제외한 농업부문에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생산능력 확장(4배)이 가장 주요한 성과로 보도됨.
 - 농장 내에 사과종합가공공장, 돼지공장 건설
 - 평양시 사동구역의 애국남새가공공장의 저장고 신축, 함흥시에 36동의 남새온실 건설 등 채소 재배능력 확충
- 북한은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의 도입 성과를 선전하고 있음.⁴¹⁾
 - 사리원 돼지공장, 평북 돼지공장, 함주 돼지공장 등에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공정 완비⁴²⁾
- 대규모 화학비료 공정의 건설과 함께 전국에서 10여개의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백암군에 대규모 감자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등 감자 생산 증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양강도 갑산군에 감자가공공장을 신설하고, 평양시 주변 농장들에 감자 저장고들을 확충
- 축산 부문에서는 역포목장 생산능력 확장 등 개별 목장, 닭공장, 오리공장 등 ‘가축공장,’ 그리고 종축장 등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함.
- 수산부문에서는 어업보다는 양어, 양식 부문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우렁이 양식장 건설, 서해지구에 철갑상어 양어 체계 확립 및 바다양어 성공,⁴³⁾ 국가 과학원의 양어 및 축산용 ‘큰 단백질 발효먹이’ 개발,

41)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19일.

42) 『중앙방송』, 2010년 12월 30일.

43) 『중앙통신』, 2010년 11월 30일.

해초 및 메기 생산 계획 초과 달성 등이 주요 성과로 보도되었음.

※ 김정일은 2010년 11월 용정양어장을 방문, “북에는 강과 호수 등이 많기 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어를 균중적 운동으로 광범히 벌여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⁴⁴⁾

- 임업부문에서는 통나무 생산 실적보다는 산림조성 및 양묘 생산 분야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됨.
 - 전국적으로 150만 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함경북도의 수림화·원림화 사업을 추진⁴⁵⁾

다. 경공업 부문

- 2010년 경공업 부문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 부문에 대한 전력 및 원자재 공급을 증가시키고, 식품가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 건설과 기존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늘림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 증가가 예상됨.
-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을 강조한 데 이어, 예산 편성에서도 이들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증대함.
 - 2010년 예산에서 경공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1%, 농업부문은 9.4% 증대시켰으며, 4대 선행부문은 7.3% 증가시켰음.
 - 예산 증가에 따라 식품가공 뿐만 아니라 일용품 등 경공업 부문 전반에 대하여 전력 및 원자재 공급을 늘리고, 설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배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
- 2009년부터 경공업 부문 성과 보도는 주로 종합식품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한 식품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44) 『중앙통신』, 2010년 11월 22일.

45)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19일.

- 특히, 각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하여 전문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삼일포식 종합식료 공장’이 건설되어 생산에 들어갔음을 보도하면서 ‘경공업발전의 일대 혁명’이라고 선전하였음.⁴⁶⁾
 - 황해북도 정방산종합식료공장: 강냉이국수, 고구마떡 등 주식과 농토산물 등 부식 생산
 - 평안남도 백송종합식료공장: 국수류, 고기류, 차류 등 생산
 - 양강도 청봉종합식료공장: 감자국수, 들쭉 단묵 등 북부 고산지대 가공품 생산
 - 자강도 장자산·함경북도 수성천·평안북도 압록강 종합식료공장: 오이, 마늘, 들깨 잎, 더덕 장아찌 등 ‘지방의 천연향취를 담은’ 특산품 생산
 - 강원도 송도원·함경남도 백운산·황해남도 수양산종합식료공장: 수산자원을 이용한 식혜류·회류 등
- 식품가공부문 이외에는 방직부문이 2009년에 이어 성과보도가 많이 되고 있음.
- 평양방직공장의 데트론인견천 생산공정, 함흥모방직공장의 비날론섬유띠실 생산공정, 신의주방직공장의 1만추뜨개실 생산공정 등 방직공업부문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보도
 - 『조선신보』⁴⁷⁾는 북한 경공업성 부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 모든 경공업 지표들에서 2009년에 비해 1.3배의 생산실적을 냈다고 보도함.
- 그런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생산 증대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임.
- 식품부문을 제외하고는 경공업 부문의 생산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대부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46) 『로동신문』, 2010년 4월 8일.

47) 『조선신보』, 2010년 12월 21일.

- 식량 상황이 악화되어 식량 및 비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공업용 원자재의 수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
- 비닐론을 비롯하여 주로 경공업 원자재인 ‘수백종(420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한다는 2.8비닐론연합기업소가 재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섬유부문을 비롯한 여타 경공업 부문 생산에서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간 위탁가공교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남북한 위탁가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섬유·의류부문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라.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2010년도에는 CNC화가 과학기술부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기계공업뿐만 아니라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과 지방 산업공장들에서도 CNC화가 추진되어 생산과 건설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선전
- 3월 31일 개최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⁴⁸⁾에서 과학·산업기술 관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선전함.
 - 국방부문: 인공위성과 다단계 운반 로켓 개발, 제2차 지하 핵실험
 - 금속공업 주체화: 성진제강, 김책제철,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
 - 화학비료공업 주체화: 남흥청년화학, 흥남비료연합기업소
 - 종합적 대화학기지 건설: 현대화, CNC화된 2.8비닐론 연합기업소
 - 각종 공장, 기업소의 CNC화: 대안중기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48) 『중앙방송』, 2010년 3월 31일.

마. 건설·국토관리부문

- 건설부문의 핵심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며, 이와 관련된 동향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음.
- 『조선신보』는 2012년까지 추진 예정인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사업 관련, 2010년 3만 5천 세대, 2011년 3만 세대, 2012년 3만 5천 세대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도함.⁴⁹⁾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2009년 9월 착공)은 3개 지역에 3단계로 2012년까지 건설될 예정
 - 2010년: 평양시 북쪽 용성구역-서포-남쪽 역포구역의 철도연선에 2만 세대, 중구역 등 중심부 각 구역에 1만 5천 세대
 - 2011-2012년: 만경대구역 대평지구에 6만 5천 세대(2011년에 3만 세대, 2012년에 3만 5천 세대를 순차적으로 건설)
 - 평양시 살림집은 7층에서 25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로 건설: 평양 중심부의 해방산 지구는 9~14층에 건평 140~170㎡ 등 대형 아파트, 만경대 구역은 20~25층의 고층 아파트 건설 예정
- 계획과 달리 2010년도에 완공된 주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문 건설기업과 군부대가 동원되어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성과로 낙랑-역포지구 살림집 골조공사 60% 수행,⁵⁰⁾ 김창섭 소속 부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골조공사 성과⁵¹⁾ 등이 보도되고 있음.
- 살림집 건설과 함께 평양시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됨.
 - 평양산원 및 평양 무용극장 등 평양시 소재 주요 기관 개건

49) 『조선신보』, 2010년 3월 30일.

50)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11일.

51) 『평양방송』, 2010년 11월 26일.

- ‘가로등 중앙조종체계 도입’을 통한 가로등 현대화 등 거리 개보수
 - 평양시 주민의 연료 공급 확대를 위한 ‘가스충진공장’ 건설 등
- 국토관리부문에서는 대계도 간석지 완공을 가장 주요한 성과로 선전
- 『조선중앙통신』은 6월 30일, “간석지 개간 역사상 가장 큰 8,800정보의 대계도 간석지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서해 섬인 대다사도와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가 수십리 제방으로 연결돼 굴곡이 심하였던 평안북도 염주군, 철산군의 해안선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간석지에는 농장, 소금밭, 양어장이 새로 생겨나고, 방조제의 덕으로 여러 군의 바다농장과 마을에서 해일, 염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
 - 이밖에 황해남도 용진군 분지만 간석지 준공⁵²⁾ 보도 등이 있음.
-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따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됨.
- 황해남도, 저수지 보강 및 110여개소의 관개 구조물, 배수·양수장 설비 보수, 70여km 강하천 정리 등 홍수 피해 대책 준비
 - 평안남도, 170km에 달하는 관개물길 정리 및 207km 구간의 강하천 정리
 - 강원도와 함경남도 기상 예보단위와 긴밀한 연계下 큰물피해 방지대책 수립⁵³⁾
- 전국적으로 150여만 정보의 산림조성, 평양시와 강계시 등 연결도로 개건, 함경남도, 평안북도의 호안공사,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강하천 정리사업 등을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성과로 선전⁵⁴⁾
- 평양시 거리 등 개보수, 평안북도 주요 도로건설과 압록강 연안제방들 보강 및 황해남도 해주시 성토공사, 함경북도의 수림화·원림화 사업진행 등 각지의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소식도 보도⁵⁵⁾

52)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9일.

53) 『중앙방송』, 2010년 7월 11일.

54) 『조선중앙통신』,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 2010년 11월 9일.

55) 『조선중앙통신』, ‘활발히 벌어지는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2010년 11월 9일.

- 2010년 성과는 아니지만,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3대 자연흐름식 물길(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 건설로 “670여개소의 양수장과 1,000여대의 양수기와 전동기 대체 및 12만여kw 전기 절약” 등 경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선전함.⁵⁶⁾

바. 상업·유통부문

- 화폐개혁과 시장억제 조치로 201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상업·유통은 크게 위축
 - 시장통제로 거래 가능한 품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으로 중소 상인들의 유동자금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시장은 급속하게 위축
- 민간부문의 상업 및 유통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부문의 유통망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당국이 시장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시장은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들의 구매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 개혁을 통하여 크게 축소된 중소상인들의 유동자금도 아직 복구되지 못하였음.
 -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해제되었으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충격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옥류관의 요리전문식당 개설, 함경북도 회령시 토끼 전문식당, 강냉이음식 전문식당, 회령 온반집 등 18개의 ‘사회급양봉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공식적인 서비스 부문 확충 노력은 지속

56) 『조선중앙통신』, ‘은을 내고 있는 조선의 3대자연흐름식물길,’ 2010년 9월 27일.

2. 북한의 대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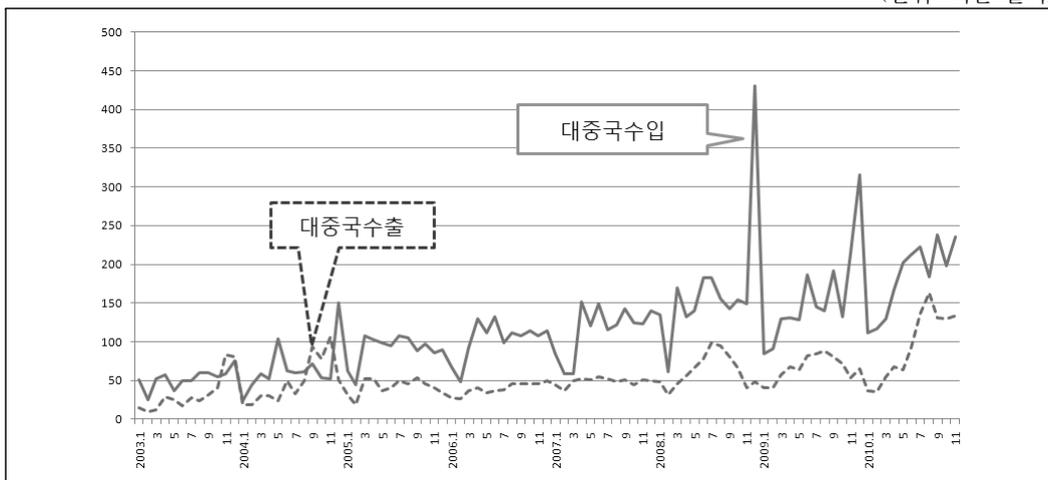
- 2010년 남북교역(1~11월)은 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하였고 북·중무역(1~11월)은 32.8%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남북교역의 증가는 전년도의 교역액이 작은 데다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 관련 반출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북·중무역 증가는 2009년 북·중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관계 확대, 국제사회 대북제재 심화에 따른 중국의존도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가.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

- 2010년 1~11월 기간 중 북·중 무역은 30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23억 달러)대비 32.8% 증가했으며, 특히 5월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
 - 동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0억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7억3천만달러)대비 42.9% 증가
 - 수입은 20억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15억 7천만달러)대비 28.1% 증가

〈그림 II-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수입(2003년 1월~2010년 11월)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광물성 연료(대부분 무연탄), 철광, 의류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2〉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2009*	2010.1-11
1	광, 슬랙, 회	164(38.5)	213(29.7)	72(n.a.)	221(n.a.)
2	광물성 연료	170(66.1)	208(22.1)	212(n.a.)	347(n.a.)
3	철강	45(28.2)	78(73.6)	43(n.a.)	91(n.a.)
4	의류	60(-4.7)	77(28.0)	56(n.a.)	139(n.a.)
5	어류	30(-30.8)	40(33.6)	22(n.a.)	56(n.a.)
총계		469(24.3)	616(31.3)	405(-34.3)	854(n.a.)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2009.8-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파악하기 곤란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북한 대중국 수출의 27%(2008년 기준)를 차지했던 무연탄(HS 2701) 수출은 금년 1~11월 중에는 전체 대중국 수출의 38.9%를 차지함.

〈표 II-3〉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량

(단위: 천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27	23	136	173	254	335	581	821	560	552	611	4,074 (3억4천만달러)

-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 및 기계류, 전기기기 등이며, 수입규모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표 II-4〉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1-11
1	광물성 연료	402(15.7)	586(45.8)	223(n.a.)	425(n.a.)
2	보일러와 기계류	104(25.0)	145(40.1)	99(n.a.)	219(n.a.)
3	전기기기, 장비	69(-29.0)	101(45.3)	71(n.a.)	163(n.a.)
4	플라스틱류	54(92.1)	67(25.4)	44(n.a.)	73(n.a.)
5	차량 및 부속품	52(35.4)	89(46.6)	69(n.a.)	142(n.a.)
총계		681(13.0)	988(45.1)	506(-48.8)	1022(n.a.)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2009.8-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파악하기 곤란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나. 남북교역의 주요 특징

〈전년 동기대비 비교〉

- 2010년 1~11월중 남북교역은 17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이후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반출(남→북)액은 8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1%, 반입(남←북)액은 9억7천만 달러로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5〉 최근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2010.1-11
반출(남→북)	1,033(24.5)	888(-14.0)	745(-16.1)	812(30.1)
반입(남←북)	765(47.1)	932(21.8)	934(0.2)	969(15.8)
교역수지	268	-44	-189	-157
교역총액	1,798(33.2)	1,820(1.2)	1,679(-7.8)	1,781(21.9)

주: ()내는 대남한 반출입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 2010년 1~11월중 거래내용별 남북교역을 보면, 상업적거래(교역+협력사업)는 17억6천만 달러로 남북교역의 98.7%를 차지

- 상업적 거래는 전년 동기대비 21.8% 증가한 반면, 비상업적거래(지원)는 2천3백만 달러로 27.2% 증가함.
- 상업적거래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일반교역(1.2억 달러)은 47.6%, 위탁가공교역(3.1억 달러)은 17.7% 감소한 반면, 개성공단사업(13.2억 달러)은 62.8% 증가함으로써 전체 남북교역의 74.2%를 차지함.

〈표 II-6〉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항 목		2007	2008	2009	2010.1-11	
상업적거래	교역	일 반 교 역	461(51.7)	399(-13.4)	256(-35.9)	118(-47.6)
		위탁가공교역	330(30.4)	408(23.8)	410(0.3)	308(-17.7)
		교역소계	791(42.0)	807(2.0)	666(-17.6)	426(-28.9)
	협력사업	개성공단사업	441(47.4)	808(83.2)	941(16.3)	1,322(62.8)
		금강산관광사업	115(102.5)	64(-44.4)	19(-86.3)	2(-71.4)
		기타경제협력사업	12(-23.2)	20(66.7)	27(35.6)	8(-66.4)
		경공업협력	73(-)	12(-83.6)	-	-
협력사업 소계	641(72.3)	904(41.0)	976(8.0)	1,333(57.7)		
상업적 거래 합계		1,432(54.2)	1,712(19.6)	1,642(-4.1)	1,758(21.8)	
비상업적거래	지원	민 간 지 원	250(-38.6)	67(-73.2)	22(-67.5)	16(-3.8)
		정 부 지 원	79(574.2)	0(-99.5)	15(3838.6)	5(1,449.1)
		지원소계	329(-21.5)	67(-79.6)	36(-45.8)	22(26.6)
	기 타	사회문화협력 에너지지원 등	37(-)	41(10.8)	1(-98.6)	0.7(48.4)
비상업적 거래 소계		366(-12.6)	108(-70.5)	37(-65.9)	23(27.2)	
총 계		1,798(33.2)	1,820(1.2)	1,679(-7.8)	1,781(21.9)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 2010년 1~11월 개성공단의 생산은 약 2억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6%증가

〈표 II-7〉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1~11.
생 산	185(150.0)	251(36.0)	256(2.0)	294(27.6)
반출(남 → 북)	339(52.3)	518(52.8)	523(1.0)	681(54)
반입(남 ← 북)	101(33.2)	290(181.7)	418(44.1)	641(73.4)
반출입 합계	441(47.4)	808(83.2)	941(16.3)	1,322(62.8)

주: 1)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 2010년 11월 기준 가동 업체 수는 121개, 2010년 11월 말 기준 북측 근로자수는 45,332명

출처: 통일부 입주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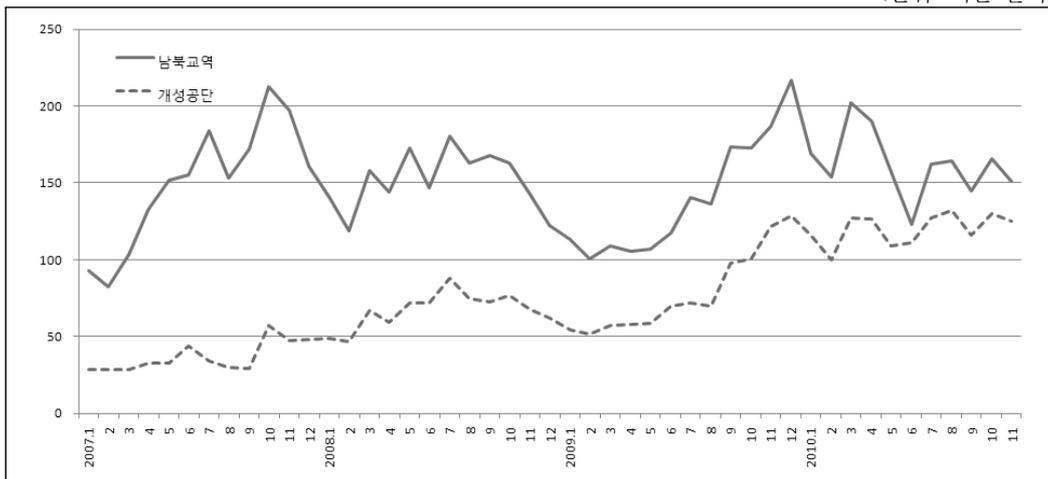
다. 전월 대비 비교

○ 남북교역은 전반적으로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및 '5.24조치'로 감소

- 단,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교류는 7월 이후 증가함으로써 1~11월중 개성공단사업 관련 교역은 약 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74.2%를 차지

〈그림 II-2〉 월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통일부

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적

(1) 중국의 대북한 인프라 건설

-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와 지린성 창지투(장춘-길림-도문) 선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同 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지역 서쪽의 신의주, 동쪽의 나진 및 청진으로 진출을 시도함.

〈표 II-8〉 북·중간 경제협력 사업 동향

구 분		투자자	주요 내용
SOC	나진항	길림성	○ 2009.10월 나진항 1호부두 보수·창고건설 합의 * 창리그룹(훈춘)
	나진-원정도로	길림성	○ 2010.3월 도로 48km 개보수 합의
	국경교량(6개)	길림성	○ 2009.12월 국경교량 보수공사 합의 * 원정(3.15 착공, 6.1 완공), 새별, 남양, 삼봉, 회령, 무산
	新압록강대교	교통운수부·상무부	○ 2009.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합의 ○ 2010.12.31 착공
전력	문악발전소	길림성	○ 2009.10월 건설(4萬kW) 합의, 2010.3.31 착공

-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의 일환으로 단동-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착공(2010.12.31)되었음.

〈표 II-9〉 창지투개발계획 상의 8개 대북통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총투자금액	건설기한
팔도(八道)-삼합(三合)-청진 고속도로(47km)	28억 위안	2015년
훈춘-권하(圈河)-라진 고속도로(39km)	23억 위안	2015년
화룡(和龍)-남평(南平)-청진 고속도로(50km)	30억 위안	2015년
도문(圖們)-남양-두만강-하산 철도 합작개조(126km)	24.3억 위안	2020년
화룡-남평-무산 철도(53.5km)	16억 위안	2015년
도문-나진 철도 합작개조(158.8km)	12.7억 위안	2020년
개산툰(開山屯)-삼봉 철도통상구 건설(2.5km 철교 복구건설)	1.5억 위안	2020년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 교량 건설(2,152km)	5억 위안	-
프로젝트 총 투자액 합계	160.5억 위안 (23.7억 달러)	

자료 : 「북중 교역투자협력의 실상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 교수(2010)

(2) 중국의 대북 제조업 투자

-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대북 임가공 무역 증가
 - 북한의 평균 임가공료는 일당 1달러(월 30달러)로 중국 비숙련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
 - 중국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최종 가공물품을 건네받은 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가공사업을 안정적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선호

-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문 및 훈춘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을 모색중
 - 중국은 노동법 개정 이후 임금이 인상된 데다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북한 숙련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현재 임금수준에 관한 북·중간 견해차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임금협상이 타결 되면 북한의 숙련노동자들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로 파견될 가능성도 존재함.

※ 북한은 숙련공의 월 임금으로 1,500위안(남한 원화기준 27~28만원으로 중국 비숙련공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이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3배) 수준 요구

(3) 기 타

- 2010년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2010년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
- 단동국제여행사가 모집한 북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1월 현재까지 3만명 수준으로 2009년 1만 4천여 명 관광객에 비해 2배 증가
 - ※ 중국의 대북관광은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등 4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단동국제여행사는 2010년 대북관광의 60%를 점유
 - 일반상품으로 평양관광을 주로 취급하고 개성, 묘향산, 남포, 그리고 접경지인 신의주 관광 상품도 취급
 - ※ 금강산 관광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원하면 갈 수는 있고 일대를 둘러보고 숙박은 원산에서 함.
- 연변국제여행사 등 연변지역 여행사들이 나진과 백두산 남쪽의 1박 2일, 2박 3일 코스 외에 회령, 청진, 칠보산, 금강산 등에 대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설

Ⅲ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파급효과

(1)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 지속
 -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은 대북 제재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 ※ 1874호의 대북 경제제재 주요 내용
 - △ 모든 무기수출입 및 관련 거래 금지
 - △ 금융제재: WMD 관련 금융서비스·이전 금지, 자산동결 등
 - ※ 인도적 지원, 개발목적, 비핵화 진전 예외
 - △ 화물검색: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해상에 선박검색 요청,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물자 지원 금지 등
- 한국의 대북 제재조치
 -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5.24 조치)를 발표하였음.

- '5.24 조치'에 포함된 우리정부의 주요 대북 경제관련 제재조치로는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임.
- 비경제적 조치로는 대북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PSI 적극참여,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더욱 엄격한 적용, 유엔안보리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응징 촉구 등임.

○ 미국의 추가적 대북 제재조치

- 오바마 정부는 2010년 8월 30일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로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함.

※ 북한만을 특정한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에 이어 두 번째임.

- 13551호 행정명령 제재 리스트에 3개 기관과 1명의 개인 지정 그리고 기존 13382호 제재 대상명단에 새롭게 5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 13551호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

△ 경찰총국: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에 개입된 대남 공작기관, 재래식 무기 및 부품 판매

△ 청송연합: 북한 경찰총국 산하의 재래식 무기 및 부품 판매회사,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既등록

△ 노동당 39호실: 불법적인 경제행위 및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를 통해 북한 지도층을 지원

△ 제재대상 개인: 김영철 경찰총국장

* 11월 18일 조선대성은행과 대성무역총회사 2곳 추가

※ 행정명령 13382호에 추가된 제재대상

△ 제재대상 기관: 조선대성무역회사, 조선흥진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 군수

공업부(노동당 산하), 제2자연과학원
 △ 제제대상 개인: 이제선(원자력총국장), 이홍섭(원자력총국 고문, 영변 원자력
 연구소 전 소장), 윤호진(남천강무역회사 대표)

(2)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대남 군사적 도발 중단 등을 목적으로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견해와 함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을 제약하고 무기거래나 불법적 경제활동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등 북한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경제는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서방국가들과의 투자협력과 과학기술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해왔음.
 -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적 목적의 제한된 지원 외에는 대북 투자나 대규모 경제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외화수급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대북 제재조치의 핵심이 북한에 대한 무기거래 금지 조치와 북한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인 무기판매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
 - 물론,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규모도 축소되고 거래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임.
 - 또한, 북한의 불법경제 활동 및 지도부의 통치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 조직과 산하 무역회사,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외화벌이 사업에도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북·중경협 등을 통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은 더욱 확대되었음.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간 경제관계가 보다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2차례나 방중을 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 그 결과 북·중무역은 2010년 1~11월까지 30억6천만 달러로 이미 2009년 무역총액(26억 8천만 달러)을 넘어섰음.
 - 중국의 대북투자도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계기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북·중경협의 활성화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1) 초기의 시장 반응: 인플레이션, 환율 폭등 및 시장활동 위축

-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이 제한되자 시장에서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함.
 - 가장 대표적인 물품인 입쌀(1kg)의 가격은 화폐개혁 초기인 2009년 12월 2~3일에는 25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점차 상승하여 12월 9일 북한당국이 지정한 상한가격이 16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상승하여 12월 12일 기준으로 55~80원에서 거래됨.
- 물가 상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2009년 12월 20일을 전후하여 화폐개혁 이전에 책정된 금액대로 월급을 지급함.
 - 이와 함께 농민들에 대한 현금분배 사업도 진행
- 북한당국이 단기적으로 막대한 금액의 임금지급과 현금분배를 시행했으나, 시장과 물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함에 따라 한동안은 물가 상승이 주춤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물자공급 방안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도된 대량의 싼권 살포를 통한 선심정책은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음.
- 화폐개혁과 함께 북한당국은 외화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킴.
 - 외환 사용금지는 중국과의 비공식 무역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됨.
 - 외화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외환 대비 북한의 신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현상이 동반됨.
- 화폐개혁과 함께 북한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2009년 12월 9일에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국정가격을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2010년 1월 14일부터

10일에 한 번씩 열리는 농민시장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

- 그러나 2월 초, 시장을 다시 허용해주고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 및 외환 유통을 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한동안 정상화되지 못함.

(2) 2010년 중반: 경제 불안정성 심화 속에서 시장거래 재활성화

- 화폐개혁 이후 북한시장에서의 물가와 환율은 북한당국의 정책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보여주었음.
 - 2월중 1kg당 300~400원 수준이던 쌀값이 3월 초 최고조에 오른 이후 외화 사용이 묵인되고 중국에서 식량이 수입되면서 조금씩 하락하여 4~5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 북한시장의 쌀가격(kg) 추이

구 분	2009년 12월초	2010년 1월말	2월 중	3월	4~6월	7~8월
북한원	20원대	600원대	300~400원	3월초 1,000원대 3월말 500~600원	400~500원	1,000원 내외

- 이러한 현상은 5~6월 춘궁기가 오면 식량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빚나간 것으로, 이처럼 예상과는 달리 식량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시장거래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후 북한의 식량 가격은 춘궁기의 영향과 환율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

(3) 2010년 후반: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강화

- 북한에서의 쌀 가격은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음.
 - 식량 가격의 하락은 무엇보다 추수철을 앞두고 상인들이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공급물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배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함.

〈표 III-2〉 북한 주요 지역의 쌀가격 변화 추세

(단위: 북한원/kg)

기간	8.25~31	8.21~9.6	9.30~10.6	10.12~18	10.26~11.1
평양	1,050	1,100	900	800	900
신의주	1,000	1,200	1,000	900	800
해산	1,100	1,150	900	830	900

출처: Daily NK, 2010년 11월 26일.

-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계기로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 12월에는 대체로 kg당 1,300원 수준을 보였음.
- 지난 10월 중순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진 인민보안부의 지시문에 따르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돈벌이에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 1.5~2톤짜리 소형 화물차 등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문제는 운송수단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씨비차’의 운행이 금지되면 시장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임.
- 11월 초순에는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세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고 함.⁵⁷⁾

57) 『열린북한방송』, 2010년 11월 14일.

- 세관에 대한 단속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 이후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와 함께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도 강화되었으며 중국과 거래하던 무역회사들은 세관에 대한 이번 검열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단속 및 통제 강화는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4) 화폐개혁의 효과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면,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화폐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공식부문에서의 상품 공급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커졌으며,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인민보안부 등 치안기관의 기능 강화 조치를 통해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북한은 2010년 4월경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편한 바, 동 기관의 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 화폐개혁이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음.
 - 교환금액의 제한을 통한 정부의 발권력 회복은 추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배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화폐개혁 여파로 인한 전반적 경제침체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화폐개혁의 주요 파급 효과로는 주민 생활난 악화 및 공장가동률 저하 현상을 들 수 있음.
- (주민 생활난 악화 관련) 화폐개혁 초기 자생적 시장세력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시장 통제력 강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장에 의지하여 생계를 해결한 대부분의 주민은 자산을 몰수당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외환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됨.
 - 이후 시장 활동과 외환 사용을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주민들은 과거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다시 허용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줌.
 - 하지만 2010년 말 기준으로 화폐개혁은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하향 평균화시켰다 할 수 있음.
 - 또한 장사 밀천을 날려버린 상인들이 시장의 매대를 포기하고 시장 주변의 골목에서 노점을 여는 ‘메뚜기 장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공장가동률 저하 관련) 화폐개혁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또 다른 그룹은 국영기업에 투자한 개인 자본가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기업 명의로 보유한 자금을 교환하지 못하게 되어 거의 파산상태에 놓이게 됨.
 - 이에 따라 공식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들은 경제의 안정성 훼손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1) 최근 산업정책의 의미

- 금속부문 강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부문 강조, 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은 2000년대의 부분적인 산업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까지 구축되어 있던 재생산 구조를 복구하려는 시도로 보임.
- 1980년대까지의 북한은 노동력, 수자원, 석탄, 철광석 등 내부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몇 가지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에너지, 기계 및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공급된 에너지와 자본재를 사용하여 군수품과 소비재를 생산하여 군수부문과 내각부문, 그리고 주민에게 공급하는 산업연관 구조를 구축
 - 원유, 일부 기계 및 원자재 등 내부적으로 조달이 되지 않은 물자는 수입을 통해 조달
-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이후의 경제위기에 따라 이러한 산업연관 구조는 붕괴되었음.
 - 특히 에너지 부문의 붕괴에 따라 자본재 부문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전체 산업 가동률이 저하
- 북한의 산업연관구조는 2000년대의 들어서 부분적인 산업생산력 복구를 통하여 일정 부분 복구된 것으로 평가됨.
 - 석탄과 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 에너지와 철광석 등을 이용한 금속 생산 → 기계부문과 일부 건설자재 부문 → 군수부문으로 이어지는 연관 구조가 규모가 축소된 채로 우선적으로 복구
 - 그러나 화학공업이 복구되지 못함에 따라 석탄 및 전력 → 석탄화학 → 경공업 및 농업으로 이어지는 생산 연쇄는 거의 복구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비재와 필수 원자재는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공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금속부문의 강조는 군수부문 우선 투자 정책에 의해서 완결되지 못한 산업연관 구조의 복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석탄화학이나 주철 등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함.

(2) 최근의 투자와 강성대국 건설

- 최근의 산업정책은 ‘강성대국 건설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남흥청년과 흥남비료의 신규 비료 생산공정이 완공되어 조업을 개시하면 10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비료 1톤=알곡 10톤’의 법칙에 따라 알곡 1,00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전
 - 식량 부분 외에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치로서 1980년대 말의 최고 생산량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렇게 목표치를 생산량 수준으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1980년대까지의 전형적인 산업정책인데, 이를 반복할 경우 잘못된 투자에 의한 자원 낭비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최종 생산물인 비날론은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체 기술로 재건되고 에너지·원료 공급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설비들이 제대로 가동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음.
 - 석탄 가스화를 통한 비료생산 공정, 주철 생산공정 역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라고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이 확보되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자원 동원 능력이 여전히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음.

라. 북·중 경제관계 확대

- 2010년 북·중 경제협력은 확대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북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확대
 - 북·중경협 추진에 있어 경제적 요인보다는 김정일 연내 2회 방중 등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 이같은 정치적 요인의 강화는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시⁵⁸⁾(국제위기감시기구(ICG), 2009.11)한 데서 비롯
 - ※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2010년 5월 및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을 통해 경협확대 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 강화
- 북·중경협 확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북·중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5월 이후 빠르게 증가
 - 중국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추진, 북한 나진항·청진항 개보수 사업 등 추진
 - 특히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임가공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문 및 훈춘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 모색중

58) 2009년 7월 15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위 외사영도소조(조장: 후진타오)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로 기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화'간 균형을 강조

- 2010년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2010년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관광코스를 다변화할 전망
- 이러한 북·중경협 확대는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동북3성 개발 등을 계기,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북·중간 임금격차 확대에 따라 저임 북한 노동력에 대한 중국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북·중경협 확대가 북한 경제가 유지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생적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북한 시장을 석권함에 따라 북한산업 전 부문에서 수입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데 기인⁵⁹⁾함.

마.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대내정책〉

- 북한은 2010년 초부터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쏟았으나 물가·환율 폭등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됨.
 - 2010년 상반기 북한 스스로도 이례적으로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인정함.
 -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4월 18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폐개혁에 대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났다”며 “하지만 사회적 혼란은 조금도 없었고 불안정한 상황도 바로 수습됐다”

59) 2000~2008년 기계류, 정밀기기 등 자본재의 무역특화지수($TSI_i = (X_i - M_i)/(X_i + M_i)$)가 -1(완전수입특화)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식료품, 전기제품 등 생필품의 동 지수도 -0.8~-0.9 수준으로 수입대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

고 언급함.

※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에 관해선 “가격조정을 비롯한 관련조치가 (화폐개혁을 시행하면서)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또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시장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북한 사회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이처럼 환율이 급등락한 것은 화폐 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화폐 개혁에 따른 북한 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 시장 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시장 환율의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올랐음.
 - 2010년 12월 현재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kg당 1,000원 이상으로 화폐개혁 직전인 2009년 11월 하순(kg당 2천200원 → 신권 22원)에 비해 4,000% 이상 폭등
- 북한은 2010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법 개정은 2009년 11월 말 실시된 화폐개혁과 2010년 1월 중순 시행된 시장폐쇄 조치에 이어 국가에 의한 경제·사회적 통제 강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재의 북한에서 이런 ‘반(反)시장적’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화폐개혁과 시장폐쇄의 잇단 실패로 입증된 바 있음.
-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⁶⁰⁾은 북한당국이 지난 5월 26일, 당의 지시 형식으로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져서 국가에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하기도 함.

60) 『오늘의 북한소식』, 2010년 6월 14일.

〈대외정책〉

- 북한은 2010년 초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 적극적인 공세를 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 외의 나라들과는 가시적인 경제협력 실적을 내지 못함.

-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외자본을 유치해 안정적 경제건설을 통해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적 규범’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제재를 우회해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2010년 1월 국방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국 국적 조선족 박철수를 총재 겸 부이사장에 임명하여 외자유치 시도
 -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6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북한과 외국 참가기업들 사이에 상품 판로개척, 선진과학기술교류, 합영·합작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논의와 협상이 진행⁶¹⁾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 및 상담회’가 병행되었음.
 - ※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독일 등 17개국과 1개 지역에서 140여개 회사들(북한 48개사, 외국 93개사) 참가, 이는 2009년보다 3개국(인도는 첫 참가) 20여개 회사들이 늘어난 것임.

- 그러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 등으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약칭 대풍그룹) 등을 통한 북한의 외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짐.

61) 『조선신보』, 2010년 10월 29일.

- 유럽 기업들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북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함.⁶²⁾
-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활로를 모색함.
 - 대풍그룹 사례 등을 보면 북한의 외자유치 활동 범위가 중화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북한의 기업, 개인, 투자기관 등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임.
 - ※ 특히 가을 전람회에는 지난 5월의 제13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보다 많은 중국기업들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8월) 성과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층이 잇달아 방중을 하면서 북·중경협이 표면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 경협방식을 둘러싼 북·중간 견해 차이가 여전히 경협이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비롯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은 민간 기업간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양국 민간 무역상들의 자유로운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반면 북한은 '불온 사상' 확산을 우려해 민간인의 호시무역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등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결국, 경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북·중경협이 생각처럼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62) 『자유아시아방송(RFA)』, 2009년 1월 23일.

(2) 주요 산업부문

- 2010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에너지, 광업, 건설, 제조업 부문은 전년보다 생산이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나, 농업, 상업·유통 부문의 생산 실적이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됨.
- 중대형발전소의 신규 조업 및 풍부한 수량에 따른 수력발전의 실적 개선, 석탄 공급 증가 및 주요 발전소 개보수 효과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률 상승 등으로 전력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철광석 등 광업부문은 전력 사정의 개선, 설비 개선 및 확충 등으로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중화학공업에서는 전력 공급 증가, 석탄 및 철광석 공급 증가, 대규모 설비 개선 및 신규 설비 투자 지속, CNC화 바람, 경공업 공장 현대화 및 신축 등에 따라 금속과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 금속부문에서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성과가 주로 보도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 좁은 의미의 CNC 공작기계의 도입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의 CNC화 열풍은 생산과정의 컴퓨터화 확산이라는 의미로 보임.
 -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석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공정이 조업을 개시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개건공사가 완료되어 비날론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화학부문에서 의미 있는 생산 증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0년에도 주체철, 주체섬유(비날론), 주체비료(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 등 주체공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문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주철의 생산 실적은 2009년에 비해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주철 생산 능력 확충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 것으로 보임.
- ※ 공식 매체의 선전과 달리 비날론과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도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경공업 부문은 당국의 경공업 부문에 대한 전력 및 원자재 공급 증가에 따라 식품 가공과 방직부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건설부문은 대계도 간척사업 등 대규모 토건공사, 평양시 10만호 주택 건설사업, 희천 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화학 플랜트 건설, 그리고 경공업 공장 현대화 및 신설 등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농업부문은 비료공급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와 불리한 성장조건 등에 따라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전년대비 약 5%, 20만톤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FAO 및 WFP는 북한의 곡물생산이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상업·유통부문은 민간부문의 축소가 공공부문의 확대에 상쇄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됨.
 - 민간 부문의 상업·유통은 화폐개혁과 시장 억제 조치 등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3)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 대북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경협을 제외한 남한 및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축소
 - 남한과의 경협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일반교역, 임가공무역 등 대부분 축소
 - 이러한 축소 현상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5.24조치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서 2010년 11월 현재 개성공단사업은 전체 경협의 74.2%를 차지
 -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
 - 특히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약칭 대풍그룹) 등의 해외자본 유치도 거의 불가능
 - 북한정부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등 북·중관계는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북·중경협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중국의 대북투자는 더디게 추진
 -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임가공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사업을 선호
 - ※ 임가공사업은 북한으로부터 최종재를 건네받은 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당할 염려가 없음.

2. 2011년 북한경제 전망

가. 김정은 후계체제下 경제분야 주요 과제

- 북한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계획’과 ‘집단주의’ 그리고 ‘자력갱생’ 등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적인 조정작업’을 통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20년간 북한 경제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변화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종종 번복되기도 하지만, 시행되었던 조치의 주요 요소들이 보이지 않게 북한경제 내부에 남아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임.
 - 예를 들면 ‘7.1 조치’가 북한당국이 목표한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각 지역 및 공장·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되돌리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임.
- 따라서 경제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김정은 후계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기존의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모험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1)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확대

- 김정은 후계체제가 사실상 공식화된 현 시점에서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가장 고민하게 될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제적 궁핍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위해 후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분간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경공업·농업부문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북한당국의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최근 후계자의 통치기반 구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주민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작업이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량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창건기념일(2010.10.10)에 대규모 ‘명절공급’ 실시, 중국에서의 식량도입 확대 등이 이루어졌음.
 - 문제는 이러한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국가재정 부족 등의 후유증을 북한당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임 (중국의 경제지원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임).

(2) 경제 질서와 통제력의 회복

-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이후 두 번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북한이 획기적으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의 정상화와 국가의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자율권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 경제 질서의 회복과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으며, 검열과 단속을 통해서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서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묵인되었던 개인들의 기업활동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6호를 통해서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2001년 5월에 개정했던 일부 계획과정의 유연화 조치를 1999년 4월 처음 제정했던 상태로 되돌린 것임.
 - ‘예비숫자, 통제숫자’ 등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표현이 재등장하였으며, 계획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내용이 부활됨.
 - 이처럼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시장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시장거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3) 해외에서의 자원 조달

- 김정은 후계체제의 세 번째 과제는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외부문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직면한 과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북한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차 핵실험 등과 같은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보다 본질적인 태도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신압록강 대교 건설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김정은 체제는 출범과 함께 중국 의존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선택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물론 현재의 상태만을 놓고 판단하면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수의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추진된 경우에도 중도에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등 북·중간 경제관계의 밀착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도문시, 단둥시 등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지역에서는 인접한 북한의 노동력 도입문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함께 2010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북한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짐.⁶³⁾

나. 북·중 경제협력관계 확대 전망

-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중경협 확대는 불가피
 - 과거 2006년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중국과 남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표 III-3〉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중 국	11.5	23.5	20.4	38.9	39.1	41.7	49.5	52.6
한 국	0.3	12.3	17.8	26.0	31.1	37.9	32.3	33.0
일 본	11.4	25.4	19.4	5.7	4.8	3.4	2.0	n.a.
기 타	76.8	38.8	42.54	29.4	25.0	17.0	16.2	n.a.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그러나 최근 남한의 5.24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는 중국 일변도의 관계가 형성될 것임.

63) 『미국의 소리(VOA)』, 2010년 11월 11일.

- 남북교역 중단과 북·중경협 확대에 의해 북한의 북·중경협 패턴은 중국을 가격설정자(price maker)로 하는 불평등한 경협이 심화될 것임.
-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이용하여 광물의 대북 평균 수입단가가 국제가격의 62.4% 수준에 불과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함.

〈표 III-4〉 중국의 광물제품⁶⁴⁾의 대북 평균수입단가 비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61.6	62.7	67.3	67.3	59.8	62.0	57.6	59.5	64.1	62.4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또한 북한이 적극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북·중경협은 북한의 자생적 생산기반을 확충하지 못한 채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경쟁력은 거의 변하지 않아 광물자원 등 1차 산품을 수출하고 생필품을 비롯한 주요 생산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남한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임.

다. 식량 수급 전망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전망

- FAO와 WFP는 홈페이지(<http://www.fao.org>)를 통해 201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함.
- 조곡 기준의 곡물 생산량은 <표 III-6>과 같음.

64) 중국이 수입한 철광석, 무연탄, 납 등 16개 주요 광물제품을 기준

- FAO와 WFP는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작황을 추정해오다 2005년부터 중단되었으나, 2008년 재개된 이후 2009년에 다시 중단되었다가, 2010년에 다시 재개함.
- FAO와 WFP가 발표한 201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533만 톤(조곡기준, 정곡 환산 시 448만 톤)으로 전년 517만 톤에 비해 3.1% 증가함.
- FAO와 WFP는 북한 주민 2,443만 명의 식량 425만 톤(1인당 연간 148kg), 종자, 가공용, 사료용, 감모, 재고 변화 등 110만 톤을 감안한 연간 식량 소요량을 535만 톤으로 추정함.
- 따라서 2011 양곡연도 북한의 예상되는 곡물 부족량은 87만 톤으로 추정
- 내년도 북한의 수입가능량 33만 톤을 고려시, 최종적으로 54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III-5〉 2010·2011년 북한의 곡물 수급 추정(조곡 기준)

구 분	2009/10년			2010/11년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1 (천톤)
본답(A)						
쌀	569	4.10	2,336	570	4.26	2,426
옥수수	503	3.39	1,705	503	3.35	1,683
기타	13	1.78	22	13	1.52	19
감자	50	2.79	139	48	3.30	158
콩	68	2.00	149	90	2.00	154
소 계	1,203	3.62	4,352	1,224		4,441
이모작(B)						
밀/보리	104	1.95	203	104	2.32	240
감자	133	2.94	390	133	3.20	427
소 계	237	2.50	593	237	2.81	667
합 계(A+B)	1,441	3.43	4,945	1,461	3.50	5,108
텃밭 및 경사지(C)	325	-	225	325	-	225
총 계(A+B+C+D)	1,766	2.93	5,170	1,786	2.99	5,333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 16, 2010.

(2) FAO·WFP의 2010년 곡물생산량 추정치에 대한 검토의견

- FAO와 WFP는 2010년 북한의 곡물 작황을 전년에 비해 다소 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농업전문가(농촌경제연구원)들의 견해와는 상이한 것임.
 - FAO와 WFP는 2010년 북한이 전년에 비해 더 많은 비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료 사정도 호전되어 더 많은 농기계를 가동하였기 때문에 작황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함.
- 국내 농업전문가들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2010년 북한의 기상여건이 나빴으며 수해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북한의 곡물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등숙기의 일조 부족이며 생육초기의 저온 현상도 감수 요인으로 지적됨.
 - 통계청이 밝힌 남한의 2010년 단위면적당 쌀 수량은 4.83톤/ha(정곡 기준)으로 전년의 5.34톤/ha에 비해 9.6% 감소함.
- 국내 농업전문가들은 201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비료 공급량 증가로 인한 증수 요인은 10만 톤
 - 수해로 인한 감수 요인은 10만 톤
 - 일조부족으로 인한 감수 요인은 20만 톤
- 2009·2010 양곡연도의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411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므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2010·2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390만 톤 가량으로 추정됨.

(3) 북한의 2010·2011 양곡연도 식량수급 전망

- 국내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2010·2011 양곡연도 자체 식량공급량은 약390만 톤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FAO/WFP 추산 수요량 535만톤에 비해 약

14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식량 공급 부족량 중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100만 톤 정도 부족이 예상됨.

○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11년에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1년 국제 곡물 시세는 현재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말 현재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40% 상승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북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가을 수확 이후 북한의 장마당 식량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겨울 동안 서서히 상승하다가 춘궁기가 가까워오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라. 2011년 북한경제 전망

(1) 추진여건

■ 대내 환경

〈정치 환경〉

-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이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
 - 지난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대외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대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증대되

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 사회의 불만 목소리를 잠재우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일반주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을 경제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3대세습이 핵심과제인 만큼,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외부에 대한 도발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2011년 북한의 정치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경제 환경〉

-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구매력의 감소와 시장에 대한 통제 조치 및 외환 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일반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시장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함.
- 이후 시장통제 완화 등의 조치로 시장은 외견상 정상을 회복하였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위 ‘씨비차’의 운영을 금지한데 이어 ‘차판들이 장사’를 단속하는 등 시장에 대한 간접통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북한당국의 세관 및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이 시장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⁶⁵⁾
-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는 이완된 경제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시장거래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북한당국은 시장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매상점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공식경제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65) 열린북한방송, 2010년 11월 14일.

■ 대외 환경

-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악화된 북한의 대외 환경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1년도에도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로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내부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강화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양보는 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화조약 체결 및 핵보유국으로서 북핵문제 논의, 그리고 핵시설 폐기(또는 핵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보상 등의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전 시도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2011년 북한의 대외 환경은 2010년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2010년 11월 방북한 미국의 해커박사 일행에게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면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시한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능력 확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북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미·북 대화의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2011년에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북관계〉

- 2011년에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미·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북관계도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6자회담 추진 의지가 미국의 국면전환 필요성과 맞물리게 되면 점진적이거나 대화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와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 요구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미·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대화 공세에 비핵화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경제제재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국지전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북·중관계〉

- 2011년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북한은 예전부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서 지원은 받되 협력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북·중간의 관계 강화가 군사안보부문으로 확대되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구조화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우선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완화시키려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작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린성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위해 북한정세의 안정과 나진항 등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투자 움직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남북관계〉

-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여파로 인하여 2011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후계구도 공고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으로서는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긴장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2) 경제정책

- 2011년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경공업 발전을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 강조함.
 - 또한 경제정책 수행에서 당의 역할 증대를 주문함.
-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경제부문의 과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증산을 통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지난해 신년사설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적인 정책 목표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민생경제’ 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유사
- 다만, 2010년과는 달리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신년사설을 통해서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강조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공업, 특히 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소비자 수요 충족, 경공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지방공업의 발전, 경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원료·자재의 주체화·국산화 등을 제시함.
- 경공업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다른 산업부문에 제시된 과업들은 단순화되었으며,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제시됨.
- 2010년 ‘4대 선행부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금속부문은 뒤로 밀리고 석탄생산 증대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됨. 이는 석탄 생산 증가를 통한 비료(주체비료)와 섬유(주체섬유) 그리고 전력의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됨.
 - ※ 2010년에는 “강제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역설한데 반해 올해는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제도 나온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화학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지난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다”고 역설하면서 화학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농업전선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이다”고 강조하면서,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에 비추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최첨단 돌파전을 계속 심화” 시켜가자고 강조함.
 - 특히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대외경제관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임.
 - 외화획득을 위한 자원개발과 수출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임.

〈대내 경제정책〉

- 2011년 북한경제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이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은 후계체제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목표는 단순히 경제 사업 차원이 아니라 “아버이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민생활 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오늘날 경공업을 대하는 입장은 인민에 대한 태도, 당을 받드는 자세, 혁명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등의 표현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
- 2011년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권력승계를 앞둔 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안정화, 인민생활부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할 가능성이 있음.

- ※ 『조선신보』는 “조선이 2012년에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는 경제의 부흥, 인민생활의 향상”이라고 규정함.⁶⁶⁾
- ※ 『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이 2010년 11월 초순께 평양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3년내에 국민경제를 1960~197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김일성 주석이 목표로 내걸었던)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사는’ 생활 수준을 달성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함.⁶⁷⁾
- 북한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강성대국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 『조선신보』는 2010년 12월 13일자 ‘유무상통’이라는 메아리 기사에서 “조선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함.
- 비슷한 맥락에서 김정은 실적 쌓기용 경제건설의 지속적 추진이 예상된다.
- 북한 후계체제는 이처럼 경제난 극복 및 후계구도 구축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면전환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1차 소비품을 비롯한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전반적 소비품 생산을 확대강화, 둘째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지속적인 추진, 셋째, 지방공업의 활성화, 넷째,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에 대한 적기 공급 등임.
 - 동시에 경공업 제품의 원료, 자재생산의 주체화,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해결, 비핵화 진전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정책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자립경제 혹은 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하면서 보수적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66) 『조선신보』, 2010년 12월 9일.

67) 『요미우리신문』, 2010년 11월 6일.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자립적 민족경제로 열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
- 즉,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시련기에도 “조선이 원료난, 연료난을 풀기 위해 선택한 길은 건국 이래의 자립경제노선을 보다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어떤 국제환경속에서도 자기 자원, 자기 기술로 자립경제를 힘있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현 시기 조선이 추진하는 경제부흥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음.⁶⁸⁾
- 이러한 보수적인 경제기조 하에서 경제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생산활동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북한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활동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등 경제안정화를 도모할 것임.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식료, 화학, 비료 등의 생산 증대 노력 및 희천발전소·평양 10만세대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임.
 - 반면, 비사회주의적 요소 차단, 주민사상통제 등 내부 단속도 지속하여 체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대외 경제정책〉

- 북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경공업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은 관련 연관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자원 마련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핵문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한 대치국면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의 위축 현상이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취해진 남북교역 중단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 등으로 외자유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임.

68) 『조선신보』, 2010년 12월 9일.

- 영변지역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공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고수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도 보수적, 수동적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 『조선신보』는 2010년 12월 9일 “경제부흥을 이룩하자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적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판단”이라고 보도. 이는 당분간 개방적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노선의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유일한 활로인 중국과의 경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임.
 - 2010년 12월 31일, 신의주-단동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진행 등 북-중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나선특별시, 위화도·황금평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국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중국 외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제재가 변함없이 지속되는한 현 상황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북핵 문제와 미·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서기 힘들 것임.
 -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결국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변수들은 남북관계 개선여부, 북·중 경험의 심화와 가시적 성과 도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

재 완화 여부 등임.

-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1년 경공업부문과 지하자원개발부문에서의 북·중간의 협력사업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 산업부문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려면 2011년에 산업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산업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큼. 특히 소비재 공급 증가를 위해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주요 산업 플랜트의 완공 및 실질적인 가동 여부가 2011년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야강 군민발전소(18만kW), 백두산 선군청년 1호발전소(6만kW)의 조업이 임박 또는 시작됐으며 희천발전소(30만kW)는 2012년 완공 예정인데, 이들 대형 수력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완공, 조업된다면 전력공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최근 완공된 대형 플랜트들이 실질적인 가동을 하게 된다면, 경공업 원자재 및 비료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현재 건설되고 있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공정의 1단계가 완공, 조업한다면 비료 생산 능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
- 전체적인 산업생산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속 생산의 증가도 필수적인데, 북한은 이를 위해 2008년경부터 김책제철소의 본격적인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원자재와 비료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서라도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대외관계는 북한 경제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2011년의 경제성과를 위협할 주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남, 대미관계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있으며, 추가적인 대북 경제적 압박 수단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북·중경제관계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대외 경제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어 북한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이나 외부적인 심각한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1년 북한 산업부문은 2010년에 비해 나름대로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정치적 선언을 위하여 과도하게 경제적 자원을 투입함에 따라 2012년 이후 북한 경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4) 대외 경제부문

-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하려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식량, 생필품, 에너지 등 주요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당분간 북·중관계를 통해서 대외부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협을 다변화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외자 또는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를 위해 광산,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외에 황금평, 위화도 개발 등과 관련된 경협을 통해 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이처럼 자금이 조성된다면, 문제는 조성된 자금을 장기계획 하에 경제정상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권력승계 및 2012년 경제강국 선언 등을 위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자금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성 지출보다 단기성과를 얻기 위한 소비성 지

출의 형태로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여 체제를 근근이 유지해 나가겠지만, 불행히도 이는 자생적 생산기반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임.

[부록]

2010 북한경제 주요실적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원 양어과학연구소, 우량품종의 ‘이육은붕어’ 새로 육종(중통) ▪ 정공업 과학분원 과학자들의 새해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중방) ▪ 평양화장품공장, 주름방지효과를 내는 「은하수살결물, 은하수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 신규 개발(중방) ▪ 은천군에서 수천대의 풍력발전기에 의해 전력 생산, 추가설치 작업 진행 ▪ 평양제1백화점에서 1.1 오전 중 155대 판매 등 국내산 TV(삼일포: 14·21·29인치, 다박솔: 21인치 반평면형) 판매 증가 및 연간 30만대 양산체제 돌입(조선신보) ▪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1호 물길굴 공사 완공(중방) ▪ 컴퓨터과학연구소·평양농업대학 과학자들, 숫자조종 파종기 개발 도입(중방) ▪ 영원발전소 등 완공 △기계공업부문의 CNC화 △수확고가 높은 종자 개발 △성과적인 화폐 교환사업으로 재정적 토대 마련(조선신보) ▪ 김정일의 지시로 「세검정」 복원(자강도 만포시 세검동) 공사가 2010년 완료목표로 2009년부터 공사 진행 중(조선신보) ▪ 평양산원 개원(1980.7.30) 30돌을 계기로 보건성 등 성, 중앙기관의 후원아래 2009년부터 내외부 등 개건 현대화(제약생산실 신설 등) 공사 진행 중(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긴잔광형광체’(도로표식판, 가로등, 각종계기 등 이용) 개발(중통) ▪ 도시경영성 주관, 전국의 오수정화장 설비 현대화 추진 중(조선신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성의 생산계획 지난해 대비 1.3배 성장, 기계공업성(공업총생산액 124.7%) 및 전자공업성(104.6%) 등 성 및 전국 각지 기업소들의 1월 생산 초과달성(중방) ▪ 평양시내 가로등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중(조선신보) ▪ 기계공업부문,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 생산도입(중통) ▪ 중앙식물원, 겨울에도 식물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뇌성나무’를 북한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는 성과 이룩(중통) ▪ 최근 개성도시건설사업소 등 개성시내 일꾼-근로자들의 32종 3만1,000여점의 중소농기구 농촌 공급 등 농촌 지원사업 성과 보도(중방) ▪ 농업기계화학연구소 과학자들, ‘벼수직파기계’(정보당 벼 수확고 20% 향상, 1일 2~3정보 파종 가능) 연구 도입(중통) ▪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주름방지효과를 내는 《은하수살결물》, 피부각질층 수분을 유지 보충하는 《은하수알로에크림》 및 효소치약 등 기능성화장품들 개발(중통) ▪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20여개의 생산 공정으로 400여개의 식료품 생산), 함북 청진시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신설 등 각지에서 식료공장 건설과 상업망 개선사업

월	내 용
	<p>추진중(조선신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관리사업을 종합조종실에서 원격조종하는 ‘가로등 중앙조종체계’ 수립(중통) ▪ 평양방직공장의 컴퓨터망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완성, 선교편직공장 등의 내의류, 셔츠, 양말 본격 생산, 신의주화학제품공장의 가루비누 생산 등 “경공업부문이 개솔개건과 신제품 개발에서 혁신적 성과 이룩”(중통) ▪ 최근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 현대적인 지능형 ‘차압전송기’(유량측정용, 각종 준위, 압력측정 등에도 이용) 개발, 도입(중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공업총생산액 108.5%, 100.2% 각각 완수 등 각 경제 단위들의 2월 계획 초과완수(중방) ▪ 석탄공업 100.4%, 기계공업성 130.8%, 전자공업성 113.5% 등 각 경제 단위들의 2월 생산계획 초과달성(평방) ▪ 만경대, 칠골, 금천 남새전문농장 등에서 봄철 영농지원 농기계 수리정비 완료 및 협동농장 지원(평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선철생산계획 102%, 강철생산계획 102.4%, 압연강재생산계획 103.5% 등 금속공업부문 101.4% 수행 등 인민경제 각 부문 2월 계획 초과달성(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등, 평양곡산공장의 경영관리 컴퓨터화 추진 및 사탕 생산 공정 조정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생산 공정 현대화·과학화 박차(중통) ▪ 수풍발전소에 새 형의 숫자식여자조절장치 개발 도입,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암모니아 생산 공정 문제 해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설비 개선 ▪ 북, 중국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 공동실험을 할 예정(조선신보) ▪ 예성강 청년2호발전소, 4호 물길굴 완공(중방) ▪ 국가과학원 식료연구소, 젖산균을 이용한 연두부(항암작용 등) 개발(중통) ▪ 황해남도 해주소년단 야영소, 개건확장 공사 완공(중방) ▪ 각지 농촌들에 봄밀, 보리심기 완료(중통) ▪ 전국 협동농장들, 모판만들기·휴보산·유기질복합비료 생산 본격화 및 알곡증산을 위한 우량종자확보사업 마무리 단계 돌입(조선신보) ▪ 동봉협동농장(함남 함주군), 지난해 알곡생산계획 151.6% 초과달성 및 올해 논벼 정보당 10t 생산목표(조선신보) ▪ 단천지구 대흥청년영웅탄광, 용양광산 등, 마그네사이트 증산투쟁 성과(중통) ▪ 평양시 만경대피복공장, 1/4분기 생산계획 110% 초과 수행(중방) ▪ 평양농업대학 연구사들, 새 품종의 ‘8월풀’ 육종에 성공(중통) ▪ 평양시 사동구역 내 300동 규모의 ‘태양열남새온실’ 건설 및 사리원시 미곡리에 80여동의 ‘새 마을’ 건설 박차(중·평방)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향산화음료 ‘이슬’, 복합젖산음료 등 미생물을 이용한 음료제품 개발에

월	내 용
	<p>서 성과(중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과학자들, 「무공해 광폭성 생물농약」 개발(중방) ▪ 철도과학분원 과학자들, ‘고류황주강미끄럼축반이재료’(동합금재료 대비수명 1.5배, 제조비용 1/10) 완성 및 각종 파쇄기 등 회전설비들에 도입(중통)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각 단위 일꾼-건설자들의 골조공사에서 성과(평방) ▪ 삼봉기술교류사, 금진약돌 계열의 의료기구(맥반석 등 물리화학적 특성과 첨단나노기술을 이용한 부정맥, 부인병, 간장애 등 치료에 효과) 개발(중통) ▪ 중앙식물원 연구집단, 식용열매나무인 왕대래나무 번식사업 활발히 진행(중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연구센터, 자체개발 풍력발전기를 평남 온천군과 증산군, 평북 운전군 등에 도입하여 주택조명, 텔레비전 이용 등 생활수요전력 충족(조선신보) ▪ 재령광산(황남 재령군/철광석생산기지), 광석운반계통의 컴퓨터조종체계 완성 등 생산 활성화 위한 기술개건에서 성과(중통) ▪ 천연물약품연구소, 영양수액 ‘알포진’, ‘지렁혈전 용해교압약’, ‘펠비나크젯제주사약’ 등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중통) ▪ 황남, 평북 등지의 협동벌에서 벼냉상모판 씨뿌리기 시작(중통)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양어 및 축산용 ‘큰 단백질 발효먹이’ 개발 도입(중방) ▪ 평양건설건재대학, ‘주철용접봉(니켈용접봉 대비 접착세기, 용접쇠물과 주철재료의 적심성 우월 등 실용성)’ 개발(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공업총생산액 110%, 석탄공업부문 107%, 기계공업성 1.2배, 전자공업성·채취기계공업지도국 산하 공장·기업소 110%, 105% 결속 등 전국적으로 1/4분기 각 부문 생산계획 완수(중방) ▪ 황북 정방산종합식료공장, 평남 백성종합식료공장, 양강도 청봉종합식료공장 등 전국 도처에 삼일포식(특산식료품가공에 공업화를 실현한 삼일포특산물공장) 종합식료공장 건설(중방) ▪ 농업과학원 축산연구소, 우량계통의 검은 얼룩젓소 생산 및 젓 생산 2배 증가 등 고기와 알 증산을 위한 연구과제들 완성(중방) ▪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발형태들 새로 제작(중통) ▪ 평양시 인민위 주민연료관리국 일꾼들, 수도시민들의 원만한 빨감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에 ‘가스충진공장’ 건설 중(중방) ▪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형 ‘공기기동식부선기’ 완성(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철생산기지들의 선철·강철 증산(중통)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제5작업반 감동네의 새집들이(80세대)(중방)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컴퓨터실 청년기술자들, 수송관계프로그램 개발 도입(중방) ▪ 2월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들, 새로운 방수액(접착력·연식율 우수) 개발(중방)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원 수하연구소, 지능화된(자동충진) 신형 ‘고속충전기(일명 CNC 고속충전기, 전압 안정단과 충전체계, 축전지 조종장치 등 구성)’ 개발(중통) ▪ ‘배 감시조정센터’ 신설(중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립광산기계공장 등 채취기계공업부문 각기 공장들의 4월 채취설비 120.2% 초과생산 및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의 공업총생산액 111.8% 초과달성(중방) ▪ 각지 농촌들, 벼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진행(중통) ▪ 첨단기술센터 연구집단, 다기능 무변압기식 주파수 안정기(변압 및 주파수 안정기능, 전동기 연기동 기능, 컴퓨터 조정기능 등) 개발(중방) ▪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의 참나무버섯 속성재배방법 완성 성과(중통) ▪ 대동강과수종합농장, 4배 이상의 과수면적 새로 조성(중통) ▪ 최근 평양 대동강매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탱크 등 설비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 능력 2배 성장(중통) ▪ 3월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 조업식 진행(중방) ▪ 강령군(황남) 등암리에 50여동의 문화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연구집단, 수지와 석회석에 의한 둘 중이공기기술 확립(중통) ▪ 70여개 시·군 모내기 종료, 전국적으로 70% 모내기 완료(중방) ▪ 황해남도 오국과 마명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 모내기 심기 완료(중방) ▪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능력 확장공사 완공(중방) ▪ 미곡협동농장(사리원시), 삼지강협동농장(재령군), 운흥협동농장(태천군) 등 전국 주요 협동 농장들의 5월말 현재 제때 모내기 완료 및 김매기 돌입(중방) ▪ 농업과학원 과학자들, 농업용 살균제 개발 및 농작물 도입결과 “88.1~ 94.6% 살균효과 입증”(중방) ▪ 각지 농촌들, 기본면적의 벼 모내기 완료(중통) ▪ 옥류관에 요리전문식당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중방) ▪ 농업과학원, 나노기술에 기초한 효능 높은 ‘농업용 살균제’ 개발(중통) ▪ 박천견직공장 128%, 평양일용품공장 106.3%, 남포영예군인신발공장 105%, 은율광산의 123.3% 등 상반기도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중방) ▪ 함경남도 금야군에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 중(중방) ▪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 중(중방)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6.21 현재 상반기도 생산계획 102% 완수 및 학포탄광의 석탄생산계획 1.2배 증기 등 전국 각지 탄전들의 석탄 생산계획 초과 달성(중통)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국가관광총국」, 금강산 관광 상품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조선신보)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들, 생산공정의 개진 현대화공사 박차(평방) ▪ 강계시 류동지구에 ‘자강도체육관(1만여평, 실내축구·농구 등 경기장과 3천여명의 관람석)’ 건설 중(중방)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시, 소금밭을 새로 건설하여 햇소금 생산 시작(중통) ▪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건설자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돼지공장 건설에 박차(평방) ▪ 최대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평양시 하당지구 살림집 3층 골조공사 주력(중통) ▪ 성천강전기공장에서 신형 전동기(전기 주파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회전수 자동보장) 개발(중방) ▪ 강령은정차재배원, 여름철 찻잎 수확 시작(중통) ▪ 황북도 축산부문 일꾼 등,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염소·토끼 수를 계획의 112.5%, 125.9%로 증산, 젖생산 115%로 증산(중방) ▪ 운천강 3호발전소(양강도) 완공과 북청군(함남)에 돼지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사과 종합가공공장 건설 중(중방) ▪ 동해지구에 건설되는 ‘금야강발전소’ 연제(*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완공(중방) ▪ 평양시건설관리국 건설자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성과(평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신형 극소형발전기(발전능력 500w, 주파수 60Hz) 생산 및 만포방사공장의 7월 중순 현재 연간계획 117% 초과 달성 등 경공업제품생산 생산성과(중통)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남가스화대상공사장의 대형 산소분리기 공기흡입 굴뚝 완공(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00세대 살림집 건설 완공(중방) ▪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중통) ▪ 2.8비탈론연합기업소, 현대적인 견철 및 연조공정 새로 완공(중통) ▪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투입된 군인건설자들의 하루 계획 200% 이상 달성, 낙랑-역포지구 공사장의 청년동맹 일꾼-건설자들의 살림집 골조공사 60% 수행(중통) ▪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도 현재 물길굴 총공사량의 88.5%, 물길굴 확장 57.4%, 물길굴 피복썩우기 9,500여m 등 건설성과(평방) ▪ 신의주선박공장 일꾼-노동자들, 7월말 현재 연간계획 116% 초과 수행(로동신문·중방) ▪ 개성시의 왕다래 나무모를 평양시 등 전국 각지에 공급, 낙랑구역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봄, 여름 남새생산계획 112% 수행 등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만t 남새 증산(중방) ▪ 강원도 세포군, 합각지붕 형식의 국수집 건설(평방) ▪ 자강도·평북·함남 등 각지 축산부문의 상반기 계획, 고기생산 118%, 알생산 139%로 수행, 강계영예군인피복공장의 7.29 현재 연간경제계획 101% 달성(중방) ▪ 평양시내 ‘강서약수’ 매대들에서 시민봉사 및 농업부문에서 유기농법 대대적 도입(중통)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제남탄광, 2단계 벨트 콘베어 공사 완공 및 2개의 새 갱 조업(중방) ▪ 평양곡산공장, CNC화 실현으로 생산능력 3배 이상으로 확대(중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전자공업성의 8월 계획 각각 130%·126.8% 완수 및 철도성과 식료일용공업부문 노동계급의 8월 화물수송계획과 생산실적 각각 104%·124% 달성(중방) ▪ 연하기계집단에서 새 형의 최첨단·고성능형 CNC 공작기계인 ‘9축 선삭가공중심반’(중량 40t) 개발(중방)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호 대형원추형 파쇄장 완공 및 생산 돌입(중방) ▪ 농업부문에서 두벌농사에 적합한 논벼품종 새로 육종(중통) ▪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선군주철공장 건립,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 2.8비날론연합기업소 주체섬유 생산 등 경제강국건설 성과 선전(중통) ▪ 황남 해주시·안악군 등지의 협동농장, 강냉이 가을걷이 성과(중방) ▪ 백암군을 대규모의 감자생산기지로 조성(평방) ▪ 개성시 해선리에서 ‘농촌문화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 생산체계 새롭게 확립하고 철생산 정상화 실현(중통) ▪ 새로 개발된 흑연재료를 이용한 ‘전극’생산 성공으로 흑연공업발전에서 성과(중통) ▪ 단천마그네사공장의 국내연료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공정’ 새로 완공, 수입대체 효과와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 무공해 등 선전(중통) ▪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자라를 대량 번식시킬 수 있는 신기술 완성(중통) ▪ 평양시 주변 농장들에 감자중자 저장고와 태양열을 이용한 우렁이 서식장 건설(중방) ▪ 황북도 ‘사리원경기장’ 시설물 개보수 및 ‘사리원 동물원’ 개건 준공(중통) ▪ 오일제약공장, 감자 부산물 순도가 95% 이상인 ‘감자글루코알칼로이드’ 제조(중통) ▪ 예성강6호발전소·연산군민발전소 완공 및 연하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완공 임박 등 전국적으로 중소형발전소 건설(중통) ▪ 식료 및 축산부문에서 ‘스피룰리나종균’(식료품 가지 수 증가 및 질적향상 효과적) 도입사업 (평성시 백송종합식료공장의 사이다, 단물 등 신제품) 적극 추진 중(중통) ▪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인회토를 이용한 효능 높은 ‘유기질광물비료’ 개발로 농업 생산 성과(중통) ▪ 3월5일 청년광산(자강도 중강군), 생산공정의 CNC화, 불량식된 영양제식당, 정양소, 문화회관 건립 등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전변(중통) ▪ 허천강발전소·강계청년발전소 등 최근 전력생산 실적 지난해 대비 1.3배 증가 등 수력발전 부문 일꾼들의 전력생산 성과(중통) ▪ 평강군,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원지 완공(중방) ▪ 김책공업종합대학, 지능형 ‘가금류 알깨우기 조종장치’ 개발(중통)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예술단’의 ‘천진·석가장·낙양시’에서 공연진행 성과 선전(중방) ▪ 기계공업·화학·임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10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성과(평방) ▪ 철도성 등 4대 선행부문 일꾼들, ‘10월 인민경제계획’ 수행기간 혁신적 성과 창조(평방)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교원학자들, 휴대용 전자식 염도계 개발(중방) ▪ 회룡시에 사회급양봉사망 건설(중방) ▪ 평양화장품공장, 염색크림·세척크림·썩머리 물비누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새로 개발(중통) ▪ 농업부문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 생산체계’ 적극 도입(중통) ▪ 황북 사리원편직공장·사리원전자기구공장·사리원직물공장 등 도내 350여개 단위에서 ‘연간

월	내 용
	<p>인민경제계획' 조기수행 성과(중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온실농장 등 각지 온실들, 환경친화적인 '물분산농약' 적극 도입(중통) ▪ 평남 양덕군의 '자연흐름식 상수도' 완공과 애국편직물공장의 연간계획 110% 완수, 황북탄 광 등 매일 계획 150% 초과달성(중방) ▪ 흑연공업 노동계급과 과학자들, 흑연제품 생산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및 "전기전도성, 내열성 제품 등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록"(중통)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전력관리운영계통과 초고전력전기로 전국조종계통 CNC화 실현" 자랑(중통) ▪ 함남 요덕군, 문화후생시설 '은덕원' 신설(평방) ▪ 황북 연탄군에 '유원지'(배구·탁구장, 유희오락장, 낚시터 등) 신설(평방) ▪ 함흥시 회상구역에 36동의 '남새온실' 건설(중방) ▪ 회양군(강원도) 인민위의 750세대의 살림집 건설 및 구장군(평북도) 용철리에서 30여동 새 집들이(평방) ▪ 함북 회령시, 토끼전문식당·강냉이음식전문식당·회령온반집 등 18개의 '사회급양봉사시설' 새로 건설(중통) ▪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11.15 개업(중통·중방) ▪ 강계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 등 각지 편직공장 노동계급,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으로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 이룩" 선전(중통) ▪ 전자공업성과 산하단위 일꾼들·노동자·기술자들, 11.15 현재 연간인민경제계획 101%로 결속(중통) ▪ '3대 자연흐름식 물길'(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별)의 농업분야, 생활용수 등에서 경제적 실리(평방) ▪ '애국남새가공공장'(평양시 사동구역)의 저장고 등 건축물 신축, 개건 및 생산공정 컴퓨터화 등 현대화공사 진행(중방) ▪ 김형직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보장을 위한 수백정보의 원료기지 새로 조성(로동신문) ▪ 수산리계급교양관 준공식 진행(중통·중방) ▪ 평북 정주시 앞바다에 위치한 '애도'(艾島)에 전력공급 송전망 완공(조선신보) ▪ 전국적으로 150여만정보의 산림조성, 평양시와 강계시 등 연결도로 개건, 함남·평북의 호안공사, 큰물피해방지 강하천 정리사업 등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소개(중통) ▪ 평양시 거리 등 개보수, 평북도 주요 도로건설과 압록강연안제방들 보강 및 황남도 해주시 성토공사, 함북도의 수립화·원립화 사업진행 등 각지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 진행(중통) ▪ 성·중앙기관 및 각지 일꾼들 등,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 지원(중방) ▪ 북한의 이동통신 기지국 확대 등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올해 들어 수배로 증가(조선신보) ▪ 마그네샤크링카와 경소마그네샤 생산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단천마그네샤 공장을 종합적 내화물생산기지로 전변(중통)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남 배천군에 시멘트 생산기지 새로 건설 및 토산군(황북)의 가을철 식수사업 전군중적 전개(평·중방) ▪ 서해지구에 철갑상어 양어체계 확립하고 바다양어 성공 보도(중통)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올해 이룩된 생산성과: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계획 112% 완수, 평양곡산공장·평양화장품공장 등 여러 공정 CNC화 실현, 해주기초식품공장·벽성식료공장 등 지방공장들의 기술개선(중통) ▪ 황북 농촌들에서 1백여만, 자강도 협동농장원들의 67만 거름 장만 등 전국 각지 농촌들의 거름 생산성과 보도(중·평방) ▪ 양강도 임업관리소 산하 연암, 백자임산사업소 노동자들의 12.5 현재 겨울철 통나무 생산계획을 각각 104%, 119% 초과 수행(중방) ▪ 대동강가구공장(평양시 소재)의 장식가공 CNC화 실현과 자동조종건조설비 도입 등으로 각종 생산가구 현대화 선전(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기술자들, 12월초 현재 지난해 대비 선철 2.5배, 강철 4.2배, 압연강재 6.7배 증산(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日)계획 120% 수행 등 각지 탄광들의 석탄증산 보도(중통) ▪ 연하기계개발자들의 신형 ‘9축선삭가공중심반’ 개발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전국조정계통 CNC화’ 등 전국 과학자·기술자들의 “최첨단 돌파전” 선전(중통) ▪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공사장주변에 10만 그루 산림조성(중방) ▪ 평양화장품공장, 기능성화장품 새로 개발(중방) ▪ 금속공업성적인 공업총생산액이 11월말 현재 작년 대비 1.3배 증가 등 올해 금속공업부문에 이룩된 성과 중요지표: 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철광석 1.6배 생산(중통) ▪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무동력식 분산 오수처리방법 개발(중방)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 조기 조업(중방) ▪ 평산대리석광산 일꾼들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170% 초과수행 및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하루계획 120% 증산투쟁 선전(평·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9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안 도입으로 매일 평균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04%, 판유리 생산계획 113.3% 수행과 외교단사업국에서 연간 자동차 수리과제 100.2% 수행(중방) ▪ 각지의 올해 건설된 기념비적 창조물(용성기계연합기업소·단천마그네사공장 개선, 평북 대계도간석지와 웅진군의 분지만간석지 건설,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 등) 성과 소개(중통) ▪ 과수업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 소개(대동강종합과수농장 확장, 고산과수농장 현대화, 정평과수농장 등의 과일나무심기 등)(중통) ▪ 황남 대천군과 연안군, 건재생산기지 건설(평방) ▪ 중앙동물원 과학자들, 바닷물 재생방법을 이용한 양어에 성공(중통) ▪ 평양시내 일꾼들의 대동강과 보통강반을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는 등 전국 각지에서 강화천

월	내 용
	<p>면모 일신 투쟁성과 보도(중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금속공업성 부상) 등, 올해 현재 공업 총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1.3배 증가(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등) 등 금속부문 생산성과 선전(평방) ▪ 식료공업부문의 현대화실현 등으로 당과류 3배, 강서약수 10배 생산능력 및 각도·시·군의 400여개 지방공업공장들 개건성과 선전(중통) ▪ 조정웅(식료공업성 부상) 등, 식료공업성 산하 860여개 각지 공장기업소들에서 당창건 기념 일 전 연간계획 조기수행 등 올해 생산성과 피력(평방) ▪ 황남 송화군의 조선식 합각지붕 형식의 ‘민족식당’ 개업 소식과 희천발전소건설 평남여단 순천시대대의 물길굴 콘크리트피복 공사 완공 보도(평방) ▪ 황북 사리원시·곡산군 등의 농업근로자들, 2011년 농사준비(거름생산 1.3배, 소석회석 생산 1.2배 향상)에서 성과 이룩(로동신문) ▪ 6.18건설돌격대원들, 고산과수농장(강원도 고산군) 2단계 토지정리 확장공사 성과 소개(로동신문) ▪ 평북 노동계급, 올해 큰물로 파괴된 압록강제방 보수공사에서 성과(평방) ▪ 평북 간석지건설사업소 일꾼들, ‘곽산간석지 2단계 공사’에서 성과(평방) ▪ 국가과학원 건설건설분원, 새로운 ‘자연흐름식관개기술’(지상언제와 지하언제 결합형식) 완성 보도(중통) ▪ 평양인민봉사학원, 새로운 복어요리 가공방법 개발(중통)

[부록]

2010 북한경제 주요행사*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조선인민경비대에서 1천여톤의 퇴비와 호미를 비롯한 9종의 소농기구 10여만 점을 사리원 미곡협동농장 등 농촌지원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1.1 새해 첫 15만산 밭파 시작(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홍석형(함북도당 책임비서 보고) 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및 건설자들 고무격려(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김정일, 김기남(당비서)·김경희·장성택(당부장들)등과 함께 재령광산 현지지도(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강원도, 김정일의 원산청년발전소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김정일 위원장이 ‘150일전투(2009.4.20~9.16)’가 마무리 된 뒤 맨 처음 자강도 희천 1호발전소 용립댐 건설장을 찾아 5년 걸릴 작업량을 5개월 사이에 이루는 기적을 창조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천속도’라는 이름을 지어줌을 선전(로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김정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 질 좋은 거름을 주변 협동농장에 보내주는 등 새해 농사준비사업 전개(평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13대 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 현지지도(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 ‘평청봉종합식료공장’ 건설 조업식, 김히택(양강도당 책임비서/조사)·김철(도인민위원장) 등 참가(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10월 7일 돼지공장’ 현지지도(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 예성강발전소 건설자들, 김정일 선물전달 및 현지말씀 관철 위한 궐기모임 진행(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 경공업부문 공장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 호응 궐기모임 각각 진행(중·평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 기계, 채취, 화학공업과 임업, 건설건설부문 공장기업소들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 호응 궐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 북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 김정일,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업소·서중수산업소 현지지도(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김정일의 인민경제부문 현지지도 선전(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수성천종합식료공장’ 건설 조업식, 한흥표(함북도 인민위원장)·김봉식(도당위 비서) 등 참가(중방)

* ‘2010 북한경제 주요행사’ 및 ‘2010 북한경제 주요일지’는 신문 보도일자 및 방송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함.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중통) ▪ 1.26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1.27 김정일, 평북도내 새로 건설된 도로 시찰-김평해(평북도당 책임비서) 및 당부장, 1부부장 등 동행(중통) ▪ 1.28 흥남제련소·흥남대흥수산기업소·서중수산사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1.30 토산군,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기념보고)참가, 김정일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중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김정일,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 소재) 현지지도(중방) ▪ 2.3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현지지도(중통) ▪ 2.4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진행(중방) ▪ 2.8 김정일,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2.20 김정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북 송림시) 현지지도(중방) ▪ 2.23 북, 인민문화궁전에서 국토 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 진행(중방) ▪ 2.25 북, 평양에서 당·정 및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대회 개최(중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 진행(중방) ▪ 3.3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원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 당중앙위 「감사」 전달 등 조업식(중통) ▪ 3.5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 3.6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흥시 군중대회 참석(중방) ▪ 3.10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통) ▪ 3.11 김정일, 희천시내(자강도) 공장들 현지지도(중통) ▪ 3.13 김정일, 사리원시 3중 3대혁명붉은기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중통) ▪ 3.13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경남도예술단 및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함흥대극장에서 연일 진행중(중통) ▪ 3.17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3.19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진행(중방) ▪ 3.23 재령광산, 김락희(황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3.25 김정일, 평북 천마전기기계공장과 대흥산기계공장 현지지도(중통) ▪ 3.25 평북돼지공장, 사리원닭공장, 광포오리공장에 ‘2009년 사회주의정쟁순회우승기’ 수여식, 김중린(당 비서) 등 참가, 사리원닭공장에서 진행(중방) ▪ 3.26 김정일의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중방)

월	내 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모체), 보산제철소, 재령광산 등 402개 공장-기업소 등에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중방) ▪ 4.1 대동강은하피복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최영립(평양시 당책) 참가, 현지에서 진행(중방) ▪ 4.13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완공, 김영일(내각 총리), 최태복(당비서), 최창식(보건상), 김응관(수도건설부장) 등 참가, 개원식 진행(중통) ▪ 4.17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방) ▪ 4.18 평양시내 일꾼-당원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파철 수집·전달(중방) ▪ 4.18 김정일의 영원발전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문상철(대동강발전소 지배인/기념보고) 등 참가(중방) ▪ 4.20 '경흥관맥주집' 개건 조업식, 박명선 내각 부총리 등 참가(중방) ▪ 4.21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중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 김일성의 영원광산 현지지도(1970.5.8) 40돌 기념보고회, 량홍주(평남도당위 비서/기념보고) 등 참가(중방) ▪ 5.16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5.18 김정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과 삼지연군 여러 부문사업(김일성 동상과 삼지연 대기념비, 삼지연 장공장) 현지지도(중통) ▪ 5.19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읍 및 새로 건설된 국수집) 현지지도(중통) ▪ 5.20 김정일, 함북도 관모봉기계공장·어랑천발전소건설장·청진토끼종축장 현지지도(중통) ▪ 5.21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및 함흥시 시찰, 함흥시 건축형성계획모형시판, 함남도 주요 경제부문 계획검토 및 이 부문사업 현지지도(중통) ▪ 5.21 김일성의 용성닭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리태섭(지배인/보고) 등 공장일꾼들 참가(중방) ▪ 5.27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5.27~28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진토끼종축장 종업원들, 홍석형(함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5.30 3월 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 조업식 진행(중방) ▪ 5.30 강령군(황남) 등암리에 50여동의 문화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김정일, 평안북도에 위치한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6.5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 현지지도(중통·중방) ▪ 6.29 대동강가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진행(중방) ▪ 6.30 대계도 간석지 준공식, 최영립(내각총리/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김기남(당비서) 등 참가하 현지에서 진행(중통)

월	내 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 김정일,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7.12 황북 서흥군 농업근로자들, 범안협농에서 이명길(농근맹 위원장/보고)·조준학(황북 촌경리위원장) 등 참가, “더 많은 유기질거름을 생산 위한 쉼기모임” 진행(중방) ▪ 7.15 김정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압록강수산사업소 ‘축양장과 굴양식장’ 현지지도(중통·중·평방) ▪ 7.16 경공업·농업·연관 부문 공장·기업소·농장들, 당 대표자회의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쉼기모임 진행(중방) ▪ 7.17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총화와 3/4분기 실행대책 등 논의(중통) ▪ 7.20 북한의 과학, 교육, 보건, 상업 등 각 부문의 기관·기업소·공장들에서 당 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쉼기모임(로동신문) ▪ 7.26·30 평북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와 압록강수산사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중방) ▪ 7.31 김정일, 자강도내 강계트랙터종합공장·장자강공작기계공장·9월방직공장 현지지도(중통)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중방) ▪ 8.3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8.5 김정일, 완공단계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8.5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중통) ▪ 8.7~8 자강도내 공장기업소(장자산종합식료공장, 9월방직공장 등), 박도춘(자강도당 책임비서), 최기룡(인민위원장) 등 참가,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개최(중방) ▪ 8.13 김정일 친필현판과 3대장군 현지지도 사적비 준공식,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진행(중방) ▪ 8.16 김정일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안극태(평남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통) ▪ 8.17 용성기계연합기업소(함남)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 광범기(함남도당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석, 김정일 「감사」 전달 등 진행(중방) ▪ 8.26 김정일,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 및 기술개선에 이바지한 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중통·중방) ▪ 8.31 황해남도 배천군 ‘예성강6호발전소’ 준공식, 현지진행(중통) ▪ 8.31 황해북도 사리원경기장 개건 준공식, 리상관(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 김정일, ‘만포운화공장’과 ‘3월5일청년광산’(자강도) 현지지도(중통·중방) ▪ 9.18 황북 ‘연산군민발전소’ 준공식,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참가(중통)

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 평양곡산공장 당과류직장 준공소식 보도(중방) ▪ 9.25 황해북도 인민대학습당, 박태덕(함북도당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가, 사리원시에서 준공식 진행(중방) ▪ 9.25 평양메기공장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고병섭(인민봉사총국 총국장) 등 참가(중방) ▪ 9.28 금야강군민발전소 첫 발전기 무부하 시운전, 진행(중방) ▪ 9.30 역포목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준공식, 전하철(내각부총리), 고병석(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중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임정규(평양시당총비서) 등 참석(중방) ▪ 10.7 본동목장 양우리 준공식, 진행 및 김정일 「감사」 전달(중방) ▪ 10.7 김정일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황북도 예술극장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평방) ▪ 10.12 10.18~21간 제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 개최(중방) ▪ 10.14 제남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 건설 조업식, 리태남(내각 부총리), 김형식(석탄공업상) 등 참가(중방) ▪ 10.27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 토의(민주조선) ▪ 10.27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건설된 여자양말 직장 준공식, 리태남(내각 부총리) 안정수(경공업상) 등 참가(중방) ▪ 10.28 개건된 향만루식당과 상점, 능력확장된 선홍식료공장 조업식 진행(중통) ▪ 10.28 단천마그네사공장, 광범기(함경남도당책/준공보고) 참가,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 준공식 진행(중방) ▪ 10.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호 초고전력 전기로 조업식 진행(중통, 로동신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 제2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10.28~11.4) 폐막식,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중통, 평방) ▪ 11.16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대형원추형파쇄장 건설 조업식(중통) ▪ 11.18 수산리계급교양관 준공식(중통·중방) ▪ 11.22 김정일, 용연바닷가 양어사업소와 용정양어장 현지지도(중방) ▪ 11.22 김정일, 용호오리공장 현지지도(중방) ▪ 11.23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11.25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새로 건설된 강질유리직장과 강서약수가공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11.26 김정일, 해방산 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 현지지도(중통·중방) ▪ 11.27 평북 창성군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 진행(중방) ▪ 11.30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월	내 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김정일,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김정일, 함북 회령시 여러부문사업(회령대성담배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회령고려약공장, 회령관, 회령 음식점거리)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6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 개건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준공식’(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0 대안친선유리공장 및 강서약수공장, 강양모(남포시당책)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현지에서 각각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1 김정일, 개건확장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및 선흥식료공장과 향마루대중식당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13 단천항·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도 라동희(육해운상), 곽범기(함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3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오수용(함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5 김정일, 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6 라선시, 림경만(라선시당 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 김정일의 라선시 현지지도(2009.12)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 예성강청년1·2호발전소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황북도 일꾼·건설자·기술자·돌격대원·지원자 등에게 「표창」(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9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평양양말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9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중량레루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사업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1 김정일,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중통·중·평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2 김정일, 자강도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5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대동강뱀장어공장(지배인, 신광호)에서 진행(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6 ‘운충강3호발전소’(양강도) 준공식, 현지 진행(중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0 평양방직공장, 데트론 인건천 생산공정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부록]

2010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금)

- 당·군·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발표(중통, 조선신보, 중·평양·중앙TV)

■ 1.2(토)

- 조선인민경비대에서 1천여톤의 퇴비와 호미를 비롯한 9종의 소농기구 10여만 점을 사리원 미곡협동농장 등 농촌지원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1.1 새해 첫 15만산 발파 시작(중방)

■ 1.3(일)

- 국내산(북한) TV 1대 1~3만원, 담요 1,500~3,000원에 판매(평양제1백화점) 등 “대중소비품 가격 인하로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화폐개혁 단행 이후 주민들의 “신권가치 반응 및 상품정보” 소개(조선신보)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홍석형(함북도당 책임비서 보고) 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 진행(중방)

■ 1.4(월)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도 및 건설자들 고무격려(중통)
- 김정일, 김기남(당비서)·김경희·장성택(당부장들)등과 함께 재령광산 현지도(중통)
- 강원도, 김정일의 원산청년발전소 현지도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북한방송 주요내용』.

■ 1.6(수)

- 김정일 위원장이 '150일전투(2009.4.20~9.16)'가 마무리된 뒤 맨 처음 자강도 희천 1호발전소 용림댐 건설장을 찾아 5년 걸릴 작업량을 5개월 사이에 이루는 기적을 창조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천속도'라는 이름을 지어줌을 선전(로동신문)
- 지광해 임업성 부상, 올해 "통나무 생산계획 무조건 수행, 목재가공 공장들 현대화 실현" 등 '새해 공동사설' 반향(평방)

■ 1.7(목)

- 김정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중통)
-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 질 좋은 기름을 주변 협동농장 보내주는 등 새해 농사준비사업 전개(평방)
- 국가과학원 양어과학연구소, 우량품종의 '이육은붕어' 새로 육종(중통)

■ 1.8(월)

- 경공업 과학분원 과학자들의 새해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등 성과 보도(중방)
- 평양 창광음식점거리의 거리와 특색있는 식당, 봉사망 등 개건된 모습 자랑(중통)

■ 1.12(화)

- 황남, 평남, 함남 등지의 농업근로자들, 기름생산과 흙보산비료 공급, 농기계 수리정비를 통한 새해 농사준비에 박차(중방)

■ 1.13(수)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 현지도(중통)
-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과 대동강건설관리국 등 일꾼-당원-근로자들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2천여t 기름 전달(중방)

■ 1.14(목)

- ‘평청봉종합식료공장’ 건설 조업식, 김히택(양강도黨 책임비서/조사)·김철(道인민위원장) 등 참가(중방)

■ 1.15(금)

- 최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주름방지효과를 내는 「은하수살결물, 은하수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 신규개발 생산성과 보도(중방)
-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10월7일폐지공장’ 현지지도(중통)
- 예성강발전소 건설자들, 김정일 선물전달 및 현지말씀 관철 위한 궤기모임 진행(중통)
- 은천군에서 수천대의 풍력발전기에 의한 전력생산 성과와 추가설치 사업 진행 및 평양산원 등 전국 각지 100여개 보건기관 일꾼들의 현장의료봉사 활동소식 보도(평방·중방)
- 대천리마구역내 일꾼·근로자들, 2,000톤의 파철과 도시거름 3,000톤을 구역내 강철전선과 협동농장들에 전달(중방)

■ 1.16(토)

- 경공업부문 공장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 호응 궤기모임 각각 진행 및 금속공업성 등 성중앙기관 정무원들의 강철 전선 적극 지원 보도(중·평방)

■ 1.18(월)

- 환경기술연구부문 과학자들이 최근 ‘생물무진실용공기조화기’ 개발, 평양 제2인민병원 등에 설치해서 “덕을 보고 있다”고 자랑(중통)
- 평양제1백화점에서 1.1 오전 중 155대 등 국내산 TV(삼일포: 14·21·29인치, 다박솔: 21인치 반평면형) 판매 증가 및 연간 30만대 양산체제 돌입 등 김병관 지배인 자랑(조선신보)

■ 1.20(수)

- 김정일,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 과학자들의‘축반이’재료 연구 완성과 이를 생산에 도입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기술자-노동자들에게도 「감사」 전달(중방)
-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1호 물길굴 공사 완공(중방)
- 기계, 채취, 화학공업과 임업, 건설건설부문 공장기업소들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 호응 펼치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통)
- 컴퓨터과학연구소·평양농업대학 과학자들, 숫자조종 파종기 개발 도입(중방)

■ 1.21(목)

- 김정일,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업소·서중수산업소 현지지도(중통)
- 평양산원 등 보건일꾼들의 평양방직공장 등 중요 경공업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등 전국 보건기관 의료일꾼들의 현장의료봉사 활동 활발히 전개(중통)
- 평양방직공장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중방)

■ 1.22(금)

- 김정일의 지시로 「세검정」 복원(자강도 만포시 세검동) 공사가 올해 완료목표로 지난해부터 공사 중이라고 독고정철(문화보존지도국 처장) 전언(조선신보)
- ‘수성천종합식료공장’ 건설 조업식, 한홍표(함북도 인민위원장)·김봉식(도당위 비서) 등 참가(중방)

■ 1.23(토)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 김철준, △150·100일전투 성과 △김정일의 인민경제부문 현지지도 △영원발전소 등 완공 △기계공업부문의 CNC화 △수확고가 높은 종자 개발 △성과적인 화폐교환사업으로 재정적 토대 마련 등 지난해 경제성과 소개 및 “2012년 경제강국건설 전망 낙관적 견해” 표명(조선신보)

■ 1.24(일)

- ‘4대 선행부문에 대고조의 진군속도가 달려있다’ 제하 금속·전력·석탄공업·철도운수 4대 선행부문 노동계급에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총공세를 힘차게 벌어나가자”고 선동(중방)

■ 1.25(월)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중통)
- 평북 신의주시·곽산군, 강원도 원산시에서 흙보산비료 생산, 모판자재 준비, 거름생산 등 올해 농사채비에 주력(중방)

■ 1.26(화)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백운산종합식료공장’ 건설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 건설 및 본격 조업준비 박차 자랑(중통)
- 평양산원 개원(1980.7.30) 30돌을 계기로 보건성 등 성, 중앙기관의 후원아래 지난해부터 내외부 등 개건현대화(계약생산실 신설 등) 공사 진행(조선신보)

■ 1.27(수)

- 김정일, 평북도내 새로 건설된 도로 시찰 - 김평해(평북도당 책임비서) 및 당부장, 1부부장 등 동행(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긴잔광형광체’(도로표식판, 가로등, 각종계기 등 이용) 개발 보도(중통)

■ 1.28(목)

- 흥남제련소·흥남대흥수산업소·서중수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1.30(토)

- 김정일,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 소재) 현지지도(중방)
- 토산군,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기념보고)참가, 김정일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현지 지도 기념보고회 개최(중방)
- 도시경영성 주관, 전국의 오수정화장 설비현대화 추진 중(조선신보)

■ 2.3(수)

-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홍수산사업소’ 현지지도(중통)
- 석탄공업성의 생산계획 지난해 대비 1.3배 성장, 기계공업성(공업총생산액 124.7%) 및 전자공업성(104.6%) 등 성 및 전국각지 기업소들의 1월 생산 초과달성 보도(중방)

■ 2.4(목)

- 평양시내 가로등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중(조선신보)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2.5(금)

- 기계공업부문,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 생산에 도입(중통)
- 중앙식물원, 겨울에도 식물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뇌성나무’를 조선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는 성과 이룩(중통)

■ 2.8(월)

- 김정일, 현대적으로 꾸러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최근 개성도시건설사업소 등 개성시내 일꾼-근로자들이 32종 3만1,000여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농촌에 지원하는 등 농촌지원사업 성과 보도(중방)

■ 2.11(목)

- 농업기계화연구소 과학자들, '벼수직파기계'(정보당 벼 수확고 20% 향상, 1일 2~3정보 파종 가능) 연구 도입(중통)
-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주름방지효과를 내는 《은하수살결물》, 피부각질층 수분을 유지보충하는 《은하수알로에크림》 및 효소치약 등 기능성화장품들 개발 자랑(중통)

■ 2.12(금)

- 평양시, 관리사업을 종합조종실에서 원격조종하는 '가로등중앙조종체계' 수립(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꺾기모임 진행(중방)

■ 2.13(토)

-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20여개의 생산공정으로 400여개의 식료품 생산), 함북 청진시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신설 등 각지에서 식료공장 건설과 상업망 개선사업 활발히 추진중(조선신보)

■ 2.15(월)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대형 산소분리기 지원(중방)

■ 2.16(화)

- 낙원기계연합기업소(평북 신의주시 소재) 제작 대형산소분리기, 함남 흥남가스화대상 공사장에 도착(중방)

■ 2.18(목)

- 강계편직공장·강계포도술공장 등 자강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2.19(금)

- 개성시 도시건설사업소 등에서 농기계수리용 자재와 32종, 31,100여 점의 중소농기구 지원 등 도내 농촌지원 주력(중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월 계획을 공업총생산액 108.1%, 선철 101.5%, 강철 101.6%, 압연강재 103% 등 수행하며 “대고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고 고무 추동(중통)

■ 2.20(토)

- 김정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북 송림시) 현지지도(중방)

■ 2.23(화)

- 평양방직공장의 컴퓨터망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완성, 선교편직공장 등의 내의류, 셔츠, 양말 본격 생산, 신의주화장품공장의 가루비누 생산 등 “북 경공업부문이 개술개건과 신제품 개발에서 혁신적 성과 이룩” 자랑(중통)
- 인민문화궁전에서 국토 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 진행(중방)

■ 2.24(수)

-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 현대적인 지능형 ‘차압전송기’(유량측정용, 각종 준위, 압력측정 등도 이용) 개발, 도입 자랑(중통)

■ 2.25(목)

- 평양에서 당·정 및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대회 개최(중방)

■ 3.1(월)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중방)

■ 3.2(화)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공업총생산액 108.5%, 100.2% 각각 완수 등 각 경제 단위들의 2월 계획 초과완수 보도(중방)

■ 3.3(수)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원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 홍석형(함북도당 책임비서), 오수용(내각 부총리) 등 참가, 당중앙위 「감사」 전달 등 조업식 진행(중통)
- 석탄공업 100.4%, 기계공업성 130.8%, 전자공업성 113.5% 등 각 경제 단위들의 2월 생산계획 초과달성 보도(평방)

■ 3.4(목)

- 만경대, 칠골, 금천 남새전문농장 등에서 봄철 영농지원 농기계 수리정비 완료 및 협동농장 지원(평방)

■ 3.5(금)

-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평양시내 일꾼·당원·근로자들, 평천구역 등 시주변 농촌들에 중소농기구 20여종 16만 2천여 점과 농기계부속품 5만7천여 점 등 지원(중방)

■ 3.6(토)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흥시 군중대회 참석(중방)

■ 3.7(일)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선철생산계획 102%, 강철생산계획 102.4%, 압연강재생산계획 103.5% 등 금속공업부문 101.4% 수행 및 전국 각지 탄광 등 인민경제 각 부문 2월 계획 초과달성 자랑(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등, 평양곡산공장의 경영관리 컴퓨터화 추진 및 사탕 생산 공정 조정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생산 공정 현대화·과학화 박차(중통)

■ 3.10(수)

-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통)

■ 3.11(목)

- 김정일, 희천시내(자강도) 공장들 현지지도(중통)
- 전자공업성 전자기술제품연구소,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대화 성과 보도(중통)
 - 수풍발전소에 새 형의 숫자식여자조절장치 개발 도입,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암모니아 생산 공정 문제해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설비 개선
- 북, 중국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 공동실험을 할 예정(조선신보)
- 불장식센터, 네온LED(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조명 이용 평양·남포·회령시 등 전국의 도시들에 불장식을 도입할 예정(조선신보)

■ 3.12(금)

- 예성강 청년2호발전소, 4호 물길굴 완공(중방)
- 국가과학원 식료연구소, 젖산균을 이용한 연두부(항암작용 등) 개발(중통)

■ 3.13(토)

- 김정일, 사리원시 3중3대혁명붉은기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경남도예술단 및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함흥대극장에서 연일 진행중(중통)

■ 3.14(일)

- 황해남도 해주소년단 야영소, 개건확장공사 완공(중방)

■ 3.16(화)

- 전국 협동농장들, 모판만들기·흙보산·유기질복합비료 생산 본격화 및 알곡증산을 위한 우량종자확보사업 마무리 단계 돌입(조선신보)
 - * 동봉협동농장(함남 함주군), 지난해 알곡생산계획 151.6% 초과달성 및 올해 논벼 정보당 10t 생산목표로 투쟁(조선신보)
- 단천지구 대흥청년영웅탄광, 용양광산 등지의 마그네사이트 증산투쟁 성과(중통)
- 평양시 만경대피복공장, 1/4분기 생산계획 110% 초과 수행(중방)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3.17(수)

- 각지 농촌들에 봄밀, 보리심기 완료 보도(중통)

■ 3.18(목)

- 평양농업대학 연구사들, 새 품종의 '8월풀' 육종에 성공(중통)

■ 3.19(금)

- 사리원시 미곡협농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진행(중방)

■ 3.20(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4.9 평양에서 소집" (중통·중방)

■ 3.22(월)

- 평양시 사동구역내 300동 규모의 '태양열남새온실' 건설 및 사리원시 미곡리에 80여동의 '새 마을' 건설 박차 보도(중·평방)

■ 3.23(화)

- 김정일, 평양산원에 산꿀, 고려약재, 의료기구와 설비 등 전달(중방)
- 황해남·북도, 봄철 식수사업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활발히 전개(중방)
- 재령광산, 김락희(황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3.24(수)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향산화음료 ‘이슬’, 복합젓산음료 등 미생물을 이용한 음료제품 개발에서 성과 이룩(중통)

■ 3.25(목)

- 김정일, 평북 천마전기기계공장과 대흥산기계공장 현지지도(중통)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과학자들, 「무공해 광폭성 생물농약」 개발(중방)
- 평북돼지공장, 사리원닭공장, 광포오리공장에 ‘2009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 수여식, 김중린(당 비서) 등 참가, 사리원닭공장에서 진행(중방)

■ 3.27(토)

- 김정일의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중방)

■ 3.30(화)

- 철도과학분원 과학자들, ‘고류황주강미끄럼축받이재료’(동합금재료 대비수명 1.5배, 제조비용 1/10) 완성 및 각종 파쇄기 등 회전설비들에 도입(중통)
-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각 단위 일꾼-건설자들의 골조공사 성과 보도(평방)

■ 3.31(수)

- 삼봉기술교류사, 금진약돌 계열의 의료기구(맥반석 등 물리화학적 특성과 첨단나노 기술을 이용한 부정맥, 부인병, 간장애 등 치료에 효과) 개발 선진(중통)
* 중앙식물원 연구집단, 식용열매나무인 왕대래나무 번식사업 활발히 진행(중통)

■ 4.1(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모체), 보산제철소, 재령광산 등 402개 공장-기업소 등에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중방)
- 풍력연구센터, 자체개발 풍력발전기를 평남 온천군과 증산군, 평북 운전군 등에 도입하여 주택조명, 텔레비전 이용 등 생활수요전력 충족(조선신보)
- 재령광산(황남 재령군/철광석생산기지), 광석운반계통의 컴퓨터조종체계 완성 등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선에서 성과(중통)
- 천연물약품연구소, 영양수액 ‘알포진’, ‘지룡혈전 용해교갑약’, ‘펠비나크젯제주사약’ 등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중통)
- 대동강은하피복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최영림(평양시 당책) 참가, 현지에서 진행(중방)

■ 4.2(금)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양어 및 축산용 ‘큰 단백질 발효먹이’ 개발 도입(중방)
- 평양건설건재대학, ‘주철용접봉’(니켈용접봉 대비 접착세기, 용접쇠물과 주철재료의 적심성 우월 등 실용성) 개발(중통)

■ 4.3(토)

- 황남, 평북 등지의 협동벌에서 벼냉상모판 씨뿌리기 시작(중통)

■ 4.7(수)

- 비료증산을 위한 ‘홍남 가스화 대상공사’ 진행상황 과시 및 건설독려(로동신문)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공업총생산액 110%, 석탄공업부문 107%, 기계공업성 1.2배, 전자공업성·채취기계공업지도국 산하 공장·기업소 110%, 105% 결속 등 전국적으로 1/4분기 각 부문 생산계획 완수 보도(중방)
- 황북 정방산종합식료공장, 평남 백성종합식료공장, 양강도 청봉종합식료공장 등 전국 도처에 삼일포식(특산식료품가공에 공업화를 실현한 삼일포특산물공장) 종합식료공장 건설 성과(중방)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새로운 유기질발효촉진제 《복합-1호》(20여종 미생물 함유, 농작물 뿌리발육촉진 및 병충해 방지 등)연구, 시험도입(중통)

■ 4.8(목)

- 농업과학원 축산연구소, 최첨단 연구과제들과 우량계통의 검은 얼룩젓소 생산 및 젓 생산 2배 증가 등 고기와 알 증산을 위한 연구과제들 완성(중방)
-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발형타들 새로 제작(중통)

■ 4.12(월)

- 평양시인민위 주민연료관리국 일꾼들, 수도시민들의 원만한 땀감문제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가스충진공장’ 건설 중(중방)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제5작업반 감동네의 새집들이(80세대) 자랑(중방)

■ 4.13(화)

-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완공, 김영일(내각 총리), 최태복(당비서), 최창식(보건상), 김응관(수도건설부장) 등 참가, 개원식 진행(중통)
-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형 ‘공기기동식부선기’ 완성(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철생산기지들의 선철·강철증산(중통)

■ 4.14(수)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컴퓨터실 청년기술자들, 수송관계프로그램 개발 도입(중방)

■ 4.17(토)

-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방)

■ 4.18(일)

- 평양시내 일꾼-당원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파철 수집·전달(중방)
- 2월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들, 새로운 방수액(접착력·연식율 우수) 개발(중방)
- 김정일의 영원발전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리태남(평남도당 책임비서), 문상철(대동강발전소 지배인/기념보고) 등 참가(중방)

■ 4.19(월)

- 북한 체오합작회사의 3G 이동통신봉사(고려링크) 이용자 수 4월 현재 12만 명 돌파 및 단말기의 국내생산도 시작 예정(조선신보)

■ 4.20(화)

- 국가과학원 수핵연구소, 지능화된(자동충전) 신형 ‘고속충전기(일명 CNC 고속충전기, 전압안정단과 충전체계, 축전지 조종장치 등 구성)’ 개발(중통)
- ‘경흥관맥주집’ 개건 조업식, 박명선 내각 부총리 등 참가(중방)

■ 4.21(수)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중방)

■ 4.23(금)

- 경흥관맥주집(평양 보통강구역) 개건(2,000㎡) 조업(4.20) 관련 맥주종류, 수용규모(7가지 맥주, 3,000~4,000명 수용 등) 등 자랑(중통)

■ 4.27(화)

- ‘배 감시조정센터’ 신설(중통)
- 농업화학화연구소, 병해충·잡초의 특성과 농약의 합리적 선택적용을 위한 다매체편집물 ‘실용농약’ 전자편람 연구 완성(중방)

■ 4.29(목)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무연탄가스화공정 완성 및 국내자원에 의거한 비료생산 돌입” 보도 발표(중통)
 - * 당과 국가 간부 등,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참관(중통)
-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사업(엄지물고기확보, 특별어종 보호 등) 적극 추진(중통)

■ 5.6(목)

- 동림광산기계공장 등 채취기계공업부문 각기 공장들의 4월 채취설비 120.2% 초과생산 및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의 공업총생산액 111.8% 초과달성(중방)

■ 5.7(금)

- 김일성의 영원광산 현지도(1970.5.8) 40돌 기념보고회, 량흥주(평남도당위 비서/기념보고) 등 참가(중방)

■ 5.10(월)

- 각지 농촌들, 벼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중통)

■ 5.14(금)

- 첨단기술센터 연구집단, 다기능 무변압기식 주파수 안정기(변압 및 주파수 안정기능, 전동기 연기동 기능, 컴퓨터 조정기능 등) 개발(중방)

■ 5.16(일)

-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중통)

■ 5.18(화)

- 김정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과 삼지연군 여러 부문사업(김일성 동상과 삼지연 대기념비, 삼지연 장공장) 현지도(중통)

■ 5.19(수)

-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을 및 새로 건설된 국수 집) 현지도(중통)

■ 5.20(목)

- 김정일, 함북도 관모봉기계공장·어랑천발전소건설장·청진토끼종축장 현지도(중통)
- 대동강과수종합농장, 4배 이상의 과수면적 새로 조성(중통)

■ 5.21(금)

- 김정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도 및 함흥시 시찰, 함흥시 건축형성계획모형시판. 함남도 주요 경제부문 계획검토 및 이 부문사업 현지도(중통)
- 김일성의 용성담공장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리태섭(지배인/보고) 등 공장일꾼들 참가(중방)

■ 5.27(목)

- 최근 평양 대동강맥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탱크 등 설비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능력 2배 성장, 맛과 특이한 향으로 근로자들의 청량음료로 호평(중통)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김정일 현지도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진토끼종축장 종업원들, 홍석형(함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5.30(일)

- 3월5일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 조업식 진행(중방)
- 강령군(황남) 등암리에 50여동의 문화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 6.2(수)

- 성·중앙기관 일꾼들·정무원들 등, 농촌 모내기사업 적극 지원(중통)

■ 6.3(목)

- 김정일, 평안북도에 위치한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6.5(토)

-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 현지지도(중통·중방)

■ 6.6(일)

- 김정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6.7(월)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연구집단, 수지와 석회석에 의한 돌 종이가공기술 확립(중통)

■ 6.9(수)

- 70여개 시·군 모내기 종료, 전국적으로 70% 모내기 완료 보도(중방)

■ 6.13(일)

- 황해남도 오국과 마명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 모내기 심기 완료(중방)
*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능력 확장공사 완공(중방)

■ 6.14(월)

- 미곡협동농장(사리원시), 삼지강협동농장(재령군), 운흥협동농장(태천군) 등 전국 주요 협동농장들의 5월말 현재 제때 모내기 완료 및 김매기 돌입(중방)

■ 6.15(화)

- 농업과학원 과학자들, 농업용 살균제 개발 및 농작물 도입결과 “88.1~94.6% 살균효과 입증” 선전(중방)

■ 6.17(목)

- 각지 농촌들, 기본면적의 벼 모내기 완료 보도(중통)

■ 6.21(월)

- 옥류관에 요리전문식당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중방)

■ 6.24(목)

- 농업과학원, 나노기술에 기초한 효능 높은 ‘농업용 살균제’ 개발 소개(중통)

■ 6.25(금)

- 박천견직공장 128%, 평양일용품공장 106.3%, 남포영예군인신발공장 105%, 은율광산의 123.3% 등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 보도(중방)

■ 6.27(일)

- 함경남도 금야군에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중(중방)

■ 6.28(월)

-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중방)

■ 6.29(화)

- 해산열사능 준공식, 양강도 해산시 연봉산기슭에서 진행(중통)
- 대동강가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진행(중방)

■ 6.30(수)

- 대계도 간석지 준공식, 최영림(내각총리/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김기남(당비서) 등 참가하 현지에서 진행(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6.21 현재 상반기 생산계획 102% 완수 및 학포탄광의 석탄생산계획 1.2배 장성 등 전국 각지 탄전들의 석탄증산 투쟁 및 생산계획 초과 달성 보도(중통)

■ 7.1(금)

- 금야군(함남), 전기문제 해결을 위한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 중(중방)

■ 7.5(월)

- 북 「국가관광총국」, 금강산 관광 상품 개발 적극 추진(조선신보)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들, 생산공정의 개진 현대화공사 박차(평방)

■ 7.7(수)

- 강계시 류동지구에 ‘자강도체육관(1만여평, 실내축구·농구 등 경기장과 3천여명의 관람석)’ 건설 중(중방)
- 김정일,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중통)
- 개성시, 소금밭을 새로 건설하여 햇소금 생산이 시작됐다고 선전(중통)
-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건설자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돼지공장 건설에 박차(평방)
- 북 최대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평양시 하당지구 살림집 3층 골조공사에 주력(중통)

■ 7.11(일)

- 황남도 저수지보강 완료 및 110여개소의 관개 구조물·배수양수장 설비 보수 정비 및 70여km 강하천 정리 등 홍수피해 대책 준비(중방)

■ 7.12(월)

- 경공업 부문 상반기 생산성과 선전 및 소비품 증산 역량 집중 강조(로동신문)
- 황북 서흥군 농업근로자들, 범안협농에서 이명길(농근맹 위원장/보고)·조준학(황북 춘경리위원장) 등 참가, “더 많은 유기질거름을 생산 위한 꺾기모임” 진행(중방)

■ 7.15(목)

- 성천강전기공장에서 신형 전동기(전기 주파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회전수 자동보장) 개발(중방)
- 김정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압록강수산사업소 ‘축양장과 굴양식장’ 현지지도 (중통·중·평방)

■ 7.16(금)

- 경공업·농업·연관 부문 공장·기업소·농장들, 당 대표자회의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꺾기모임 진행(중방)
- 강령은정 차재배원, 여름철 찾아 수확 시작(중통)

■ 7.17(토)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총화와 3/4분기 실행대책 논의(중통)

■ 7.20(화)

- 과학, 교육, 보건, 상업 등 각 부문의 기관·기업소·공장들, 당 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 하기 위한 꺾기모임 진행(로동신문)

■ 7.21(수)

- 황북도 축산부문 일꾼 등,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염소·토끼 수를 계획의 112.5%, 125.9%로 증산, 젖생산 115% 생산(중방)

■ 7.24(토)

- 운천강3호발전소(양강도) 완공과 북청군(함남)에 돼지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사과 종합가공공장 건설 진행 중(중방)

■ 7.26(월)

- 평북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와 압록강수산사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7.28(수)

- 평양시건설관리국 건설자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성과(평방)

■ 7.29(목)

- 동해지구에 건설되는 ‘금야강발전소’ 언제(*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완공(중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신형 극소형발전기(발전능력 500w, 주파수 60Hz) 생산 및 만포방사공장의 7월 중순 현재 연간계획 117% 초과 달성 등 경공업제품생산 생산 성과 선전(중통)

■ 7.31(토)

- 김정일, 자강도내 강계트랙터종합공장·장자강공작기계공장·9월방직공장 현지지도(중통)

■ 8.2(월)

- 흥남가스화대상 공사장의 대형 산소분리기 공기흡입 굴뚝 완공(중방)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중방)

■ 8.3(화)

-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8.5(목)

- 김정일, 완공단계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00세대 살림집 건설 완공(중방)
-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중통)

■ 8.6(금)

- 중앙남새연구소의 봄 통배추 등 다수확품종 전국 남새전문협동농장들 보급 및 국가과학원 정보기술도입실과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수의약품들(이온화 CMF 등) 효능 선전(중통)

■ 8.7(토)

- 자강도내 공장기업소(장자산종합식료공장, 9월방직공장 등), 박도춘(자강도당 책임비서), 최기룡(인민위원장) 등 참가,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개최(중방)
- 북 금강산호텔에서 “7.20부터 숙박하는 손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국내 관광객들도 접수하고 있다”고 보도(조선신보)

■ 8.9(월)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적인 견절 및 연조공정 새로 완공(중통)

■ 8.11(수)

-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투입된 군인건설자들의 하루 계획 200% 이상 달성, 낙랑-역포지구 공사장의 청년동맹 일꾼-건설자들의 살림집 골조공사 60% 수행 등 자랑(중통)

*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도 8.6 현재 물길굴 총공사량의 88.5%, 물길굴 확장 57.4%, 물길굴 피복씰우기 9,500여m 등 건설성과 보도(평방)

■ 8.12(목)

- 신의주선박공장 일꾼-노동자들, 7월말 현재 연간계획 116% 초과 수행(로동신문·중방)

■ 8.13(금)

- 김정일 친필현판과 3대장군 현지도 사적비 준공식,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진행 (중방)

■ 8.14(토)

- 개성시의 왕다래 나무모를 평양시 등 전국 각지에 공급 및 낙랑구역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여름 남새생산계획 119% 수행하는 등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만t 증산성과(중방)

■ 8.15(일)

- 강원도 세포군, 합각지붕 형식의 국수집 건설 보도(평방)

■ 8.16(월)

- 자강도·평북·함남 등 각지 축산부문의 상반기 계획, 고기생산 118%, 알생산 139% 및 강계영예군인피복공장의 7.29 현재 연간경제계획 101% 달성(중방)
- 평양시내 ‘강서약수’ 매대들에서 시민봉사 및 농업부문에서 유기농법 대대적 도입 선전(중통)

- 김정일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안극태 (평남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통)

■ 8.17(화)

- 용성기계연합기업소(함남)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 광범기(함남도당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석, 김정일 「감사」 전달 등 진행(중방)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제남탄광, 2단계 벨트 콘베어 공사 완공 및 2개의 새 갱 조업(중방)

■ 8.26(목)

- 김정일,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 및 기술개선에 이바지한 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 (중통·중방)

■ 8.31(화)

- 황해남도 배천군 ‘예성강6호발전소’ 준공식, 현지진행(중통)
- 황해북도 사리원경기장 개건 준공식, 리상관(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통)
- 평양곡산공장, CNC화 실현으로 생산능력 3배 이상으로 확대(중통)

■ 9.4(토)

- 기계, 전자공업성의 8월 계획 각각 130%·126.8% 완수 및 철도성과 식료일용공업부문 노동계급의 8월 화물수송계획과 생산실적 각각 104%·124% 달성 자랑(중방)

■ 9.10(금)

- 농업부문에서 두벌농사에 적합한 논벼품종 새로 육종(중통)

■ 9.11(토)

- 김정일, ‘만포운화공장’과 ‘3월5일청년광산’(자강도) 현지지도(중통, 중방)
- 연하기계집단에서 새 형의 최첨단·고성능형 CNC 공작기계인 ‘9축 선삭가공중심반’ (중량 40t) 개발 보도(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1호 대형원추형 파쇄장 완공 및 생산 돌입(중방)

■ 9.13(월)

- 함흥시, 용성기계연합소의 선군주철공장 건립,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 2.8비날론연합기업소 주체섬유 생산 등 경제강국건설 투쟁에서 성과 이룩(중통)

■ 9.16(목)

- 황남 해주시·안악군 등지의 협동농장, 강냉이 가을걷이에서 성과 이룩(중방)

■ 9.18(토)

- 황북 ‘연산군민발전소’ 준공식, 최룡해(황북도당 책임비서) 참가(중통)

■ 9.24(금)

- 평양곡산공장 당과류직장 준공소식 보도(중방)
- 개성시 해선리에서 ‘농촌문화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 9.25(토)

- 황해북도 인민대학습당, 박태덕(함북도당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가, 사리원시에서 준공식 진행(중방)
- 백암군을 대규모의 감자생산기지로 조성(평방)
- 평양메기공장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고병섭(인민봉사총국 총국장) 등 참가(중방)

■ 9.28(화)

- 금야강군민발전소 첫 발전기 무부하 시운전, 진행(중방)

■ 9.30(금)

- 역포목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준공식, 전하철(내각부총리), 고병석(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중방)

■ 10.1(금)

-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림정규(평양시당토 비서) 등 참석(중방)

■ 10.6(수)

- 본동목장 양우리 준공식, 진행 및 김정일 「감사」 전달(중방)

■ 10.7(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 생산체계 새롭게 확립하고 철생산 정상화 실현(중통)
- 김정일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황북도 예술극장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평방)

■ 10.12(화)

- 제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10.18~21) 개최(중방)
- 새로 개발된 흑연재료를 이용한 ‘전극’생산 성공으로 흑연공업발전에서 성과 이룩(중통)

■ 10.13(수)

- 단천마그네사공장의 국내연료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공정’ 새로 완공, 수입대체 효과와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 무공해 등 자랑(중통)

■ 10.14(목)

- 제남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 건설 조업식, 리태남(내각 부총리), 김형식(석탄공업상) 등 참가(중방)
-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자라를 대량 번식시킬 수 있는 신기술 완성(중통)
- 평양시 주변 농장들에 감자종자 저장고와 태양열을 이용한 우렁이 서식장 건설(중방)
- 황북도 ‘사리원경기장’ 시설물 개보수 및 ‘사리원동물원’ 개건 준공 등 “사리원시가 새롭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자랑(중통)

■ 10.15(금)

- 오일제약공장, 감자 부산물 순도가 95%이상인 ‘감자글루코알칼로이드’ 제조(중통)

■ 10.18(월)

- 예성강6호발전소·연산군민발전소 완공 및 연하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들 완공 임박 등 전국적으로 중소형발전소 건설 자랑(중통)
- 식료 및 축산부문에서 ‘스피룰리나종균’(식료품 가지 수 증가 및 질적향상 효과적) 도입사업(평성시 백송종합식료공장의 사이다, 단물 등 신제품) 적극 추진 중(중통)

■ 10.20(수)

-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인회토를 이용한 효능높은 ‘유기질광물비료’ 개발로 농업생산에서 성과 이룩(중통)
- 3월5일청년광산(자강도 중강군), 생산공정의 CNC화, 불장식된 영양제식당, 정양소, 문화회관 건립 등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전변 자랑(중통)

■ 10.26(화)

- 허천강발전소·강계청년발전소 등 최근 전력생산 실적 지난해 대비 1.3배 증가 등 수력발전부문 일꾼들의 전력생산 성과 보도(중통)
- 평강군,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원지 완공(중방)

■ 10.27(수)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 토의(민주조선)
- 김책공업종합대학, 지능형 ‘가금류 알깨우기 조종장치’ 개발(중통)
- 평양여자양말공장에 새로 건설된 여자양말 직장 준공식, 리태남(내각 부총리)안정수(경공업상) 등 참가(중방)

■ 10.28(목)

- 개건된 향만루식당과 상점, 능력확장된 선홍식료공장 조업식 진행(중통)
- 단천마그네사공장, 광범기(함경남도당책/준공보고) 참가,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 준공식 진행(중방)

■ 10.29(금)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호 초고전력 전기로 조업식 진행(중통·로동신문)

■ 11.4(목)

- 제2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10.28~11.4) 폐막식,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중통·평방)
- 북, 중국의 6번째 ‘북두항해유도시험위성’ 발사(11.1) 성공 및 ‘평양예술단’의 ‘천진·석가장·낙양시’에서 공연진행 성과 보도(중방)
- 기계공업·화학·임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10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성과 보도(평방)
 - * 철도성 등 4대 선행부문 일꾼들, ‘10월 인민경제계획’ 수행기간 혁신적 성과 창조(평방)

■ 11.6(토)

- 회룡시에 사회급양봉사망 건설 보도(중방)

■ 11.7(일)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교원학자들, 휴대용 전자식 염도계 개발(중방)

■ 11.8(월)

- 평양화장품공장, 염색크림·세척크림·쑤머리 물비누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새로 개발(중통)

■ 11.9(화)

- 농업부문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 생산체계’ 적극 도입성과 자랑(중통)

■ 11.10(수)

- 황북 사리원편직공장·사리원전자기구공장·사리원직물공장 등 도내 350여개 단위에서 ‘연간인민경제계획’ 조기수행 성과 보도(중방)
- 평양온실농장 등 각지 온실들, 환경친화적인 ‘물분산농약’ 적극 도입 선전(중통)

■ 11.11(목)

- 평남 양덕군의 ‘자연흐름식 상수도’ 완공과 애국편직물공장의 연간계획 110% 완수, 황북탄광 등 매일 계획 150% 초과달성 보도(중방)
- 흑연공업 노동계급과 과학자들, 흑연제품 생산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및 “전기전도성, 내열성 제품 등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록” 자랑(중통)

■ 11.12(금)

- 회양군(강원도) 인민위의 750세대의 살림집 건설 및 구장군(평북도) 룡철리에서 30여동 새집들이 자랑(평방)

■ 11.13(토)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전력관리운영계통과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조종계통 CNC화 실현” 자랑(중통)
- 함남 요덕군, 문화후생시설 ‘은덕원’ 새로 건설(평방)

■ 11.15(월)

- 이동통신 기지국 확대 등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올해 들어 수배로 증가하였다고 보도(조선신보)
- 함북 회령시, 토끼전문식당·강냉이음식전문식당·회령온반집 등 18개의 ‘사회급양봉사시설’ 새로 건설(중통)
-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개업소식 보도(중통·중방)
- 강계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 등 각지 편직공장 노동계급,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으로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 이룩” 선전(중통)
- 전자공업성과 산하단위 일꾼들·노동자·기술자들, 15일 현재 연간인민경제계획 101%로 결속(중통)

■ 11.16(화)

- ‘3대 자연흐름식 물길’(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의 농업분야, 생활용수 등 경제적 실리 소개·선전(평방)
- ‘애국납새가공공장’(평양시 사동구역)의 저장고 등 건축물 신축, 개건 및 생산공정 컴퓨터화 등 현대화공사 진행(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대형원추형파쇄장 건설 조업식, 리태남(내각부총리), 김태봉(금속공업상), 오수용(함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중통)

■ 11.17(수)

- 김형직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보장을 위한 수백정보의 원료기지 새로 조성(로동신문)

■ 11.18(목)

- 수산리계급교양관 준공식, 김기남(당비서)·이용철(청년동맹 1비서)·이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중통·중방)
- 평북 정주시 앞바다에 위치한 ‘애도’(艾島)에 전력공급 송전망 완공(조선신보)

■ 11.19(금)

- 전국적으로 150여만정보의 산림조성, 평양시와 강계시 등 연결도로 개건, 함남·평북의 호안공사, 큰물피해방지 강하천 정리사업 등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소개(중통)
- 평양시 거리 등 개보수, 평북도 주요도로건설과 압록강연안제방들 보강 및 황남도 해주시 성토공사, 함북도의 수림화·원림화 사업진행 등 각지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 소식도 보도(중통)

■ 11.20(토)

- 성·중앙기관 및 각지 일꾼들 등,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 지원(중방)

■ 11.22(월)

- 김정일,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와 룡정양어장 현지도(중방)
- 김정일, 룡호오리공장 현지도(중방)

■ 11.23(화)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11.25(목)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새로 건설된 강질유리직장과 강서약수가공공장 현지도(중통·중방)

- 마그네슘크링카와 경소마그네슘 생산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단천마그네슘 공장을 종합적 내화물생산기지로 전변(중통)
- 황남 배천군에 시멘트 생산기지 새로 건설 및 토산군(황북)의 가을철 식수사업 전군 중적 전개(평·중방)

■ 11.26(금)

- 김정일, 해방산 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 현지지도(중통·중방)

■ 11.27(토)

- 평북 창성군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 진행(중방)

■ 11.30(화)

- 김정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서해지구에 철갑상어 양어체계 확립하고 바다양어 성공 보도(중통)

■ 12.2(목)

- ‘대동강종합건설기업소’에서 생산되는 각종 타일과 고급기와 등 각 단위들에서 생산되는 “건설 및 불수강관제품들의 경제적 효과성” 자랑(중통)

■ 12.3(금)

- 김정일,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12.4(토)

- 김정일, 함북 회령시 여러부문사업(회령대성담배공장, 회령식료기공공장, 회령고려약공장, 회령관, 회령 음식점거리) 현지지도(중통·중방)

-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올해 이룩된 생산성과 보도(중통)
 -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계획 112% 완수, 평양곡산공장·평양화장품공장 등 여러 공장 CNC화 실현, 해주기초식품공장·벽성식료공장 등 지방공장들의 기술개선

■ 12.5(일)

- 황북 농촌들에서 1백여만t, 자강도 협동농장원들의 67만t 기름 장만 등 전국 각지 농촌들의 기름 생산성과 보도(중·평방)

■ 12.6(월)

-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중방)
- “2010년은 선군조선의 위력이 과시된 뜻깊은 한 해”라며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 열병식 성과적 개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체제 확립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의 비료공업 주체화 △각지 발전소 건설 및 기계공업의 CNC화 선전(중통)

■ 12.7(화)

- 양강도 임업관리소 산하 연암, 백자임산사업소 노동자들의 12.5 현재 겨울철 통나무 생산계획을 각각 104%, 119% 초과 수행(중방)
- 대동강가구공장(평양시 소재)의 장식가공 CNC화 실현과 자동조종건조설비 도입 등으로 각종 생산가구 현대화 선전(중통)

■ 12.8(수)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기술자들, 12월초 현재 지난해 대비 선철 2.5배, 강철 4.2배, 압연강재 6.7배 증산(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日)계획 120% 수행 등 각지 탄광들의 석탄증산 보도(중통)
- 강원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과수농장의 현대화공사 일환으로 전호식(戰壕式) 구덩이파기 주력(중방)

■ 12.9(목)

- 개건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준공식’, 최영림(내각총리)·문경덕(평양시 당책)·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양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중통)

■ 12.10(금)

- 대안친선유리공장 및 강서약수공장, 강양모(남포시당책)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현지에서 각각 진행(중방)
- 연하기계개발자들의 신형 ‘9축선삭가공중심반’ 개발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전극 조정계통 CNC화’ 등 전국 과학자·기술자들의 “최첨단 돌파전” 선전(중통)
-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공사장주변에 10만 그루 산림조성(중방)

■ 12.11(토)

- 김정일, 개건확장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및 선홍식료공장과 향마루대중식당 현지지도(중통·중방)

■ 12.12(일)

- 평양화장품공장, 기능성화장품 새로 개발(중방)
- 단천항·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라동희(육해운상), 곽범기(함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12.13(월)

-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무동력식 분산 오수처리방법 개발(중방)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 조기 조업(중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오수용(함북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꺾기모임 진행(중방)

■ 12.14(화)

- 금속공업성적인 공업총생산액이 11월말 현재 작년 대비 1.3배 증가 등 올해 금속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 중요지표 상세 보도(중통)
 - 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철광석 1.6배 생산 장성

■ 12.15(수)

- 김정일, 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평산대리석광산 일꾼들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170% 초과수행 및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하루계획 120% 증산투쟁 선전(평·중방)

■ 12.16(목)

- 라선시, 립경만(라선시당 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 김정일의 라선시 현지지도 (2009.12)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12.17(금)

- 예성강청년1·2호발전소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황북도 일꾼·건설자·기술자·돌격대원·지원자 등에게 「표창」(중통·중방)
- 각지의 올해 건설된 기념비적 창조물(용성기계연합기업소·단천마그네사공장 개건, 평북 대계도간석지와 옹진군의 분지만간석지 건설,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 등) 성과 소개(중통)
- 과수업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도 소개(대동강종합과수농장 확장, 고산과수농장 현대화, 정평과수농장 등의 과일나무심기 등)(중통)
- 황북 곡산군과 신평군 등 농업근로자들, 다음해 농사준비에 박차(평방)
- 중앙동물원 과학자들, 바닷물 재생방법을 이용한 양어에 성공(중통)
- 평양밀가루공공장과 평양 양말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12.18(토)

-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9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안 도입으로 매일 평균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04%, 판유리 생산계획 113.3% 수행과 외교단사업국에서 연간 자동차 수리 과제 100.2% 수행 보도(중방)

■ 12.19(일)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중량레루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사업 진행(중방)
- 북약초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만3,000여 정보의 약초산지 확보(중통)
- 황남 대천군과 연안군, 건재생산기지 건설(평방)

■ 12.20(월)

- 올해 김정일의 ‘희천발전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평양밀가루기공공장 등 현지지도에서의 성과 선전(중방)
-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12월7일공장·선홍식료공장·향만루대중식당 등지에서 각각 진행(중방)

■ 12.21(화)

- 김정일,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중통·중·평방)

■ 12.22(수)

- 평양시내 일꾼들의 대동강과 보통강반을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는 등 전국 각지에서 강하천 면모 일신 투쟁성과 보도(중방)
- 김정일, 자강도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중통·중방)
- 황남 룡연군에 새로 건설된 ‘룡연바닷가양어사업소’, ‘룡정양어장’(김정일, 11.22일 현지지도 보도)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업적의 결과”로 선전(중방)

■ 12.23(목)

- 한일(금속공업성 부상) 등, 올해 현재 공업 총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1.3배 증가(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등) 등 금속부문 생산성과 선전(평방)

■ 12.24(금)

- 올해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식료공업부문의 현대화실현 등으로 당과류 3배, 강서약수 10배 생산능력 및 각도·시·군의 400여개 지방공업공장들 개선성과 선전(중통)
- 황남 송화군의 조선식 합각지붕 형식의 ‘민족식당’ 개업 소식과 희천발전소건설 평남 여단 순천시대의 물길굴 콘크리트피복 공사 완공 보도(평방)

■ 12.25(토)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쫓기모임, 대동강뱀장어공장(지배인, 신광호)에서 진행(중방)

■ 12.26(일)

- ‘운충강3호발전소’(양강도) 준공식, 현지 진행(중통)

■ 12.27(월)

- 황북 사리원시·곡산군 등의 농업근로자들, 2011년 농사준비(거름생산 1.3배, 소석회석 생산 1.2배 향상)에서 성과 이룩(로동신문)
- 6.18건설돌격대원들, 고산과수농장(강원도 고산군) 2단계 토지정리 확장공사 성과 소개(로동신문)
- 평북 노동계급, 올해 큰물로 파괴된 압록강제방 보수공사에서 성과(평방)
 - 평북 간석지건설사업소 일꾼들, ‘곽산간석지 2단계 공사’에서 성과(평방)

■ 12.28(화)

- 국가과학원 건설건설분원, 새로운 ‘자연흐름식관개기술’(지상언제와 지하언제 결합형식) 완성 보도(중통)
 - * 황남 강령군에서 전산 - 사연사이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진행(중방)
- ‘현대적으로 개진된 밀가루 가공기지’ 제하로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 개진 현대화로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 선전(중방)

■ 12.29(수)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 조기 조업(평방)

■ 12.30(목)

- 평양인민봉사학원, 새로운 북어요리 가공방법 개발(중통)
- 평양방직공장, 데트론 인견천 생산공정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12.31(금)

- 북중 압록강다리 착공식, 중국 단둥시에서 진행(중통)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인 쇄_ 2011년 1월 24일

발 행_ 2011년 1월 26일

발행처_ 통일연구원

발행인_ 통일연구원장

편집인_ 남북협력연구센터

주 소_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_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4

(팩시밀리) 02)901-2572

홈페이지_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_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통일연구원, 201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